

# 1. 일반

## 1. 국가개요

### 가. 국가개황

국명	우즈베키스탄(Republic of Uzbekistan)
면적	447,400 km <sup>2</sup>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2017 기준)
수도	타슈켄트(Tashkent)
인구	32,650,000 명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2017 기준)
민족(인종)	우즈베크인(82.9%), 타직인(4.8%), 러시아인(2.7%), 고려인(0.7%), 기타(8.9%)
언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70%), 시아파 이슬람교(20%), 그리스 정교(10%)
기후	고온건조한 사막성기후 ○ 하절기(6~9월): 평균 온도는 15~36°C 이며 평균 강수확률은 약 3%로 건조한 기후 ○ 동절기(11~2월): 평균 온도는 0~9 °C 이며 평균 강수확률은 약 20%로 다습한 기후
국가원수	Shavkat Mirziyoyev 대통령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2. 한국과의 관계

###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 국교 수립일

1992-01-29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1992-11-20		
투자보장협정	1992-11-20		
과학기술협력협정	1992-11-20		
항공협정	1994-06-06		
이중과세방지협정	1998-12-25		
세관분야 공조협정	1999-12-01		
범죄인 인도조약	2004-11-23		
형사사법 공조조약	2004-11-23		
사회보장협정	2006-05-01		
외교관 여권사증 면제협정	2009-06-10		
수르길 사업 투자협정	2011-08-23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2012-12-25		
관광협력협정	2013-01-09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2013-08-11		
보건의료 협력 협정	2015-05-28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협정	2015-05-28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 한국교민 수

2,000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 정치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수차례의 정상외교를 포함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경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서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17년 11월 미르지요예프 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시 우즈베크의 WTO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원요청 및 한-우즈베키스탄 간 FTA 체결 공동 연구 제안이 있어 현재 양국이 검토 중인 상태에 있다.

## 문화

특별한 사항 없음.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3. 경제지표

####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8	7.9	7.8	5.3	-
명목GDP (십억\$)	63.11	66.49	67.07	48.83	43.3
1인당 GDP (PPP, \$)	5,735.59	6,148.23	6,582.89	6,943.6	7,337.56
정부부채 (% of GDP)	11.7	9.21	10.46	24.3	19.22
물가상승률 (%)	9.08	8.46	7.98	12.55	19.23
실업률 (%)	-	-	-	-	-
수출액 (백만\$)	-	-	8,974	10,079.21	11,224
수입액 (백만\$)	-	-	11,328.4	12,035.21	17,312.26
무역수지 (백만\$)	-	-	-2,354.4	-1,956	-6,088.26
외환 보유고 (백만\$)	13,994.55	14,152.11	14,669.58	14,582.13	12,996.56
이자율 (%)	-	-	-	-	-
환율 (자국통화)	2,310.95	2,567.99	2,965.25	5,113.88	8,069.61

<자료원 : IMF>

#### 경제 동향

##### 1) GDP

농업, 섬유, 화학, 자동차 등 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최근 10년간 주재국 정부 및 국제금융기구 발표 GDP 성장률이 매년 4%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7년 9월 은행환율과 블랙마켓환율 단일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환율이 단기간 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달러 환산 GDP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우즈벡 정부의 2018년 GDP 성장률 전망은 5.2%이며 IMF는 5.0%, ADB는 4.9%로 전망하고 있다.

##### 2) 교역

우즈벡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9월 교역량은 231억 4,2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하였다. 그중 수입이 136억 7,330만 달러로 33.3%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94억 6,960만 달러로 0.7% 증가하였다. 농업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장려 정책으로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 이후 법인이 국제거래를 위한 외화를 한도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설비, 원부자재 수입 장려, WTO 가입 준비 등을 위한 관세, 소비세의 지속 인하에 따라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 3) 환율

2018년 초 1달러당 8,120숨에서 시작했던 환율은 7~8월 7,700숨대까지 진입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12월 기준 8,300숨대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우즈벡 정부의 금을 포함한 외화보유고는 26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 4) 인플레이션

2017년 9월 환율 단일화 조치로 2017년 14.4%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16~17%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외국인 투자

투자위원회가 2018년 12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투자금액은 24억 달러로 전망된다.

## 경제 전망

### 1) GDP

지속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 2018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즈벡 정부가 5.4%, IMF와 ADB가 5.0%를 전망하고 있다.

### 2) 교역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관세소비세 조정이 교역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수출과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수입교역액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일부 우려된다.

### 3) 환율

세계 무역전쟁, 신흥국발 글로벌 및 러시아 경기침체, 국제 원자재 가격 등락, 무역수지 적자폭 등에 따라 환율 상승 가능성이 있다.

### 4) 인플레이션

2018년보다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에도 15% 내외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소비 시장, 환율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 5) 외국인 투자

투자위원회는 2019년 국내외 대규모 국제 비즈니스 포럼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전년 대비 70.8% 상승한 4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 II. 무역

### 1. 수출입

####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999.3
2	러시아	1,764.9
3	카자흐스탄	1,057.6
4	터키	686.2
5	아프가니스탄	517.3
6	이란	350.4
7	한국	201.8
8	타지키스탄	164.8
9	키르기스스탄	121.5
10	프랑스	120.2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2,025.5
2	러시아	2,019.2
3	카자흐스탄	1,057.6
4	터키	877.8
5	아프가니스탄	615.6
6	이란	267
7	타지키스탄	185.2
8	키르기스스탄	178.6
9	프랑스	143.2

10	한국	119.8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2,869
2	러시아	2,192.9
3	카자흐스탄	1,457.7
4	터키	931.9
5	아프가니스탄	599.7
6	키르기스스탄	348.2
7	타지키스탄	236.1
8	프랑스	189.9
9	이란	172.6
10	영국	164.4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2,007.47
2	러시아	1,964.94
3	한국	930.45
4	카자흐스탄	922.52
5	터키	533.31
6	독일	490.41
7	미국	317.99
8	이탈리아	195.12
9	일본	160.27
10	리투아니아	125.7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2,763.95
2	러시아	2,625.34
3	카자흐스탄	1,250.29
4	한국	1,180.43
5	터키	680.75
6	독일	667.32
7	이탈리아	189.7
8	우크라이나	167.67
9	리투아니아	148.83
10	키르기스스탄	146.27

<자료원 : UN Comtrade>

####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3,557.9
2	러시아	3,536.9
3	한국	2,046.9
4	카자흐스탄	1,564.5
5	터키	1,234.5
6	독일	724.8
7	일본	687.2
8	라트비아	388.6
9	미국	378.1
10	벨라루스	376.8

<자료원 : UN Comtrade>

####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것	2,861,265,000
2	271121	천연가스	801,287,000
3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317,904,000
4	284410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	288,003,000
5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253,418,000
6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9,345,000
7	5205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48,136,000
8	52051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37,805,000
9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113,175,000
10	080620	건조한 것	82,662,000

<자료원 : UN Comtrade>

##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것	3,674,929,000
2	271121	천연가스	763,647,000
3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395,453,000
4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304,667,000
5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87,436,000
6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184,092,000
7	52051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76,337,000
8	5205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66,322,000
9	284410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	140,800,000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17,594,000

<자료원 : UN Comtrade>

##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것	2,485,438,000
2	271121	천연가스	1,591,741,000
3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439,500,000
4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427,161,000
5	520514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214,934,000
6	5205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65,773,000
7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161,268,000
8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37,493,000
9	080929	기타	127,796,000
10	520513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26,066,000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353,376,000
2	271019	기타	338,392,000
3	999999	기타	336,428,000
4	870899	기타	260,461,000
5	100199	기타	201,789,000
6	440711	제재목	166,531,000
7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27,546,000
8	151219	기타	107,130,000
9	7210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101,748,000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98,409,000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870899	기타	398,577,000
2	300490	기타	385,921,000
3	271019	기타	330,427,000
4	100199	기타	197,734,000
5	440711	제재목	192,929,000
6	999999	기타	179,147,000
7	7210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154,985,000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51,763,000
9	721049	기타	143,175,000
10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39,900,000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899	기타	588,237,000
2	300490	기타	420,963,000
3	999999	기타	372,062,000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49,928,000
5	271019	기타	328,524,000
6	100199	기타	284,923,000
7	440711	제재목	242,416,000
8	7210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216,540,000
9	170199	기타	197,265,000
10	721049	기타	181,486,000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한국과의 수출입

###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2,032	27	2,005
2015	1,284	16	1,268
2016	928	21	907
2017	1,180	18	1,162
2018	1,882	20	1,86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553	1	552
2	7411	승용차	133	0	132
3	2140	합성수지	52	0	51
4	7131	공기조절기	4	0	4
5	9990	기타 잡제품	14	0	13
6	7251	건설중장비	15	0	14
7	7111	원동기	21	0	20
8	7133	가열난방기	2	0	1
9	7112	펌프	18	0	18
10	6152	철구조물	9	0	8

####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20	자동차부품	738	0	738
2	7411	승용차	261	0	261
3	2140	합성수지	55	0	55
4	7131	공기조절기	53	0	53
5	9990	기타 잡제품	51	0	51
6	7251	건설중장비	46	0	46
7	7111	원동기	38	0	38
8	7133	가열난방기	32	0	32
9	7112	펌프	29	0	29
10	6152	철구조물	28	0	2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511	펄프	0	7	-7
2	0116	과실류	0	1	-1
3	0156	식물성한약재	0	2	-3
4	4331	순면직물	0	3	-3
5	6282	몰리브덴제품	0	0	0
7	4213	면사	0	3	-3
6	0191	천연섬유원료	0	0	-1
9	0199	기타농산물	0	0	-1
8	7420	자동차부품	553	1	552
10	2310	질소비료	0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511	펄프	0	8	-8
2	0116	과실류	0	3	-3
3	0156	식물성한약재	0	2	-2
4	4331	순면직물	0	2	-2

5	6282	몰리브덴제품	0	1	-1
7	4213	면사	0	1	-1
6	0191	천연섬유원료	0	1	-1
9	0199	기타농산물	0	0	0
8	7420	자동차부품	738	0	738
10	2310	질소비료	0	0	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3. 무역협정

####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p>독립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FTA, CIS FTA)</p>	<p>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p>	<p>2011-10-18</p>	<p>2012-09-20</p>	<p>독립국가연합은 1991년 12월 31일 소련연방 붕괴 이후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조지아를 제외한 11개 국가가 결성한 정치공동체를 가리킨다. 1993년 조지아도 러시아의 압력에 의해 가입했으나, 2008년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내 탈퇴했다.</p> <p>현재 회원국은 러시아·몰도바·벨라루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립국으로서 준회원국으로 머물고 있으며, 1994년 CIS 국가들은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고, 동년 12월 지역 내 FTA 협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계약에 최종 서명이 체결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존재했다.</p> <p>다시 2009년 5월 19일, FTA 협정에 관한 제1차 CIS 회원국 전문가 그룹 세션이 러시아 경제발전기구의 주도 하에 개최됐다. 당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8개국(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의 대표가 참석했다.</p> <p>2011년 10월 최종 서명을 거쳐 2012년 CIS FTA가 발효됐으며, 2016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총 8개국에서 발효, 타지키스탄 1개국에서 타결 심의,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2개국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p>

비아랍지역 이슬람 경제협력 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	터키,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1992-02-01	서아시아, 독립국가, 중동 그리고 유럽을 포괄하는 이슬람권 범지구적 자유무역협정으로 RCD(터키, 이란, 파키스탄 3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기구. 1964~1979)의 후신으로 간주되는 기구이다. 1985년 상기 3개국은 비아랍지역 이슬람 경제협력기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국가 간 경제, 기술, 문화 협력을 위해 이란의 테헤란에서 협정을 맺었다. 1992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7개 이슬람 국가들이 회원 자격으로 가입했다. 가입 날짜인 11월 28일은 ECO가 비약적으로 팽창한 날로서 자체적으로 매년 기념하고 있다.
---	---	------------	--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한-우즈벡 FTA	한국	<p>2015년 5월 고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민 방한을 앞두고 5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이 '한-우즈벡 무역협정 공동연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p> <p>이후 2017년 11월 23일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의 국민 방한 중 확대 정상회담 시 우즈벡 측이 한-우즈벡 FTA와 관련된 우즈벡측의 양국간 공동연구 실시 희망에 대해 양측이 조속히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발표했다.</p>	

WTO	WTO	<p>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WT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였다. 2002년 7월 17일 WTO 가입에 관한 워킹그룹 첫 미팅 개최 후 2005년까지 3번의 미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통화, 통관, 관세 규제, 정책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가입 논의가 이뤄졌으나, 2006년부터 협상과 가입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2009년경부터는 워킹그룹의 활동 및 가입 협의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p> <p>그러나 2017년 말부터 우즈베크 정부는 WTO 가입 추진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p> <p>2018년 초 발표된 '활발한 기업가 정신,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의 해' 국가 프로그램 초안에 따르면 우즈베크는 WTO 가입을 위한 작업을 가속화하고 WTO 가입 작업 가속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p>	
-----	-----	--	--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수입규제 및 관세

###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 수입금지품목

각종 공공질서, 영토 수호, 정치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저해와 전쟁, 폭력, 테러 및 반유대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쇄출판물, 원고, 그림, 사진, 영화 등의 매체물 및 포르노 콘텐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입금지(통제)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군비, 탄약 및 군사장비
- 항공기 부품 및 그 장비
- 군수 물자 및 항공기 제조를 위한 기계
- 폭발물
- 독극물
- 드론
-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위한 도구
- 보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정보통신개발부 허가를 받지 않은 고주파 라디오 전자통신기기
- 국가 자연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오존 파괴 물질, Red book에 포함된 약용, 식용 야생초 및 관상식물, 희귀 멸종 위기 동물
- 에너지 표준기준 및 라벨링 기준 미부합 가전제품
- 기타 금지 물품

### 나.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 1) 개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1993년 12월 28일,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 의하면 표준 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보호와 함께 자원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변수를 반영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영토 내 반입 시 필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Uzstandard이며, 그 외의 품목들은 각 분야별로 관련 정부기관이 관장한다.

##### 2) Uzstandard 인증 획득 절차

Uzstandard 인증 획득 시 직접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인증 절차

- 인증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실험 프로그램 검정 및 샘플조사, 실험
- 품질 평가 및 제품 적합 선언
- 인증서 발급 및 국가 등록

○ 필요서류

- 신청자의 인감으로 봉인된 신청서
- 제품 라벨 샘플(상품 정보)
- 우즈벡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 서류(인보이스, 송장 등)
- 제품과 관련된 규제 문서 사본(있을 경우)
- 위생증명서 사본(있을 경우)

관련 서류양식 및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 Uzstandard

- 주소: 333A, st. Farobiy, Tashkent, 100049, Uzbekistan
- 전화번호/팩스: +998-71-246-1763
- e-mail: uzst@standart.uz
- 홈페이지: www.standart.uz

3) 제약, 의료기기 인증, 등록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발전공사(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담당하며 등록 비용은 2,000~3,000달러(제품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상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요구서류는 아래와 같다.

- 요구서류: 등록신청서, 제품 개요서,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기기 작동 매뉴얼 및 설명서, 임상 및 기술시험에 관한 정보, 기기 테스트 방법, 국제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정보(필요시), 제조업체 정보(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공증 필요)

4) 위생증명서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위생증명서가 요구되며 위생증명서는 국가에서 인가한 위생 검역 센터(Center of State Sanitary-Epidemiological Surveillance)에서 위생 및 역학적 검토를 거쳐 발급된다.

위생증명서 발급은 2004년 7월 6일 내각에서 승인된 N318 제품 인증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세부 절차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같이 접수된 서류 검토
- 제품 검사 계획 수립
- 위생증명서 발급 관련 계약 작성
- 샘플 선택 및 실험실 테스트 수행(세균, 독성, 잔류농약, 파툴린, 니트로사민, 기생충, 방사능 검사 등)
- 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및 발급

○ 제출서류

- 우즈벡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서류(인보이스, 송장 등)
- 원산지 증명서(만약 제품에서 동식물 원산지에 대해 나타낸 경우, 식물 또는 수의학 전문가의 판단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

위생증명서는 발급 후 3년간 동일 제품에 대해 유효하며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만큼 유효하다. 부정적 검사 결과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불허된 경우 이를 신청자에 서면 통보하게 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TBT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WTO 가입을 재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정식회원국이 아닌 Observer로서 WTO에 무역기술장벽(TBT) 내용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WTO TBT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일례로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2015년 9월 4일 전자제품 에너지 필수 라벨링 시행 규정 법안에 서명하여 약 4개월 후인 2016년 1월 1일 부 해당 기준 및 라벨링 규정 미부합 제품 수입 금지 및 7월 1일부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해외기업들이 라벨 도안 및 시험 절차 상세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대응에 애로를 겪은 바 있다.

## 다. 관세제도

### 관세제도 개요

우즈베키스탄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농식품, 생필품, 보건의료 관련 제품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설비, 원재료 등에는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자국 내 보호가 필요한 산업과 품목의 경우에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현재 Observer로 참여 중) 관세 장벽이 높고 관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 자주 세부품목에 대한 세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관계 정보 획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 그룹별로 대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돼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는 HS CODE 10자리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수입 통관 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관세, 소비세가 각각 0%~100% 이상, 부가가치세가 0% 또는 20%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낮다고 하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외에도 통관 시 통관수수료가 0.2%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한편, 관세 부과 기준은 송장(Invoice) 신고 가격이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자 세관이 자체 보유한 품목별 가격 리스트를 활용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홈페이지(<http://customs.uz/ru/lists/view/184>)에서 러시아어, 우즈베크어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영문 홈페이지는 준비 중에 있다.

추가로 우즈베크 법률조회포탈 [lex.uz](http://lex.uz)에서 러시아어, 우즈베크어로 법령 번호, 제목 등 조회를 통해 관세 관련 법령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

## 5. 통관 및 운송

### 가.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 1) 일반 통관

수입신고 시에는 세관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 도착통지서(D/O), B/L(Railway Bill 또는 Airway Bill)
- 포장명세서
- 송장(Invoic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관세감면 대상 품목인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 품질인증서
  - OECD 국가의 지정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가 있을 경우 우즈벡 발급 서류 제출 불요
- 회사등록 코드 사본
- 거래은행 계약 ID 번호
- 필요 시 해당 물품 공급 관련 대통령령, 내각령 등 관계 법령
- 필요 시 관련 정부 부처의 승인(과학기술위원회, 보건부 등)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원은 철도역, 공항 및 보세창고 등에서 수입자의 입회하에 실제 도착한 물품과 송장상에 기재된 내역을 비교하고 HS CODE 분류에 따라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통관수수료 등을 부과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돼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10단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 기준으로 아래의 3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HS 4단위 변형을 유발하는지 여부
-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공정 및 기술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가 현저히 증가되는지 여부

##### 2) 전시품 통관

제품의 재반송을 조건으로 임시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임시 수입, 수출에 대한 관세 규정에 따라 임시 수입, 수출 허가는 물품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 자에게 영토 세관 당국에 의해 허가되며 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시 통관 기관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1개월 전 세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 서면 신청서 작성 시 필요 내용
  - 물품 소유자 및 처리 대행자 이름 및 주소
  - 상세 제품 및 기술 정보
  - HS CODE 10자리 상품 분류 정보
  - 상품 수량(개, kg, 리터 등) 및 가치
  - 임시 수입, 수출 목적

- 제품 사용 가능 모든 유형 정보
- 물품이 사용될 장소 정보
- 임시 반입 기간
- 제품 식별 방법
- 기타 추가 정보

신청서 검토는 제출일로부터 15일간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세관 당국이 추가 서류 및 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청서 검토 시간은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계산된다.

### 3) 소액물품 통관

#### ○ 우편, 소포

- 2018.7.19 대통령령 PP-3873 “국제 우편, 소포 반입 관리를 위한 조치”에 따라 개인의 경우 일반 우편은 100달러, EMS나 DHL 화물은 분기당 1,000달러 내에서 통관이 면제되며 법인의 경우 일반 우편, EMS, DHL 등에 상관없이 100달러까지 통관이 면제된다.

#### ○ 개인의 전자제품 및 기타 제품 통관

- 2018.6.22 내각령 No.463 “개인의 물품 운송 절차 개선 추가 조치”에 따라 도보, 차량, 철도, 강 등(항공 및 우편 제외)을 통한 개인의 국경 통과 시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다리미, 청소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TV, 전자레인지, 다리미, 노트북 등 20여 가지 전자제품에 대하여 1인당 1개월에 각 품목별 1개 제품의 무관세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 통관 시 유의사항

상품분류에 따라 관세, 소비세가 0~100% 이상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어 반드시 해당 품목의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관세 부과 기준을 송장(Invoice)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어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자체 보유한 가격 리스트를 참고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관세 면제 기계설비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신고할 경우 각각을 해당하는 부품의 HS CODE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적,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한다.

###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 서중물류

주소	INCO INVEST Bldg., 2nd Floor, 32 Chekhov str., Tashkent, Uzbekistan
전화번호	+998-71-150-5676
이메일	johnnysong@sjl.co.kr
홈페이지	http://www.sjl.co.kr

#### ○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주소	2fl, 24 Oybek Str., 100015, Tashkent, Uzbekistan
전화번호	+998-71-150-2192

이메일	sergei@woojingl.com
홈페이지	http://www.woojingl.com

○ 판투스

주소	4b Afrosiab str., 2nd floor, 100031, Tashkent, Uzbekistan
전화번호	+998-71-150-7179
이메일	yongin.ryoo@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kr

○ 태웅우즈베키스탄

주소	ATRIUM Bldg 4F, Oybek Str, Tashkent, Uzbekistan
전화번호	+998-71-230-2336~8
이메일	info@e-tgl.com
홈페이지	http://www.e-tgl.com

○ TURKSIB MAGISTRAL

주소	1 Bunyodkor str., Tashkent, 100096, Uzbekistan
전화번호	+998-71-120-3865
이메일	sales@cargo.uz
홈페이지	http://www.turksib.uz/en

○ Trans Osiyo Logistika

주소	16A, A.Kaxxara str., Yakasaray district, 100090, Tashkent, Uzbekistan
전화번호	+998-71-254-2099
이메일	tol@transosiyo.com
홈페이지	http://transosiyo.com

○ TransContinental

주소	http://www.transcontinental.uz
전화번호	+998-71-120-3838

이메일	info@transcontinental.uz
홈페이지	http://www.transcontinental.uz/en

<자료원 : 2018 해외진출기업 디렉토리,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III. 투자

## 1. 투자환경

### 가.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 관련은 1991년 이후 수차례 법 제정과 폐지를 거쳐 1998년 4월 30일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으로 정비, 발표된 이후 외국인투자 기본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 법에는 외국인투자의 정의, 투자법인 형태, 투자가의 권리와 의무, 투자협정, 투자보장, 청산,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 관련 대통령령 등 관련 법규들을 포괄하여 종합 외국인투자법 제정이 추진 중이므로 우즈벡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지속적인 법률 확인이 필요하다.

#### 1) 외국인 투자 범위에 따른 구분(EWFI vs EWFCP)

-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 최소 자본금 6억 솜(Soum) 이상 (\*2018년 7월 기준 환율로 약 US\$ 75,000)
  - 투자자 중 1인 이상이 외국 법인
  - 외국인 투자의 지분이 최소 전체의 30% 이상일 것
  - JV(Joint Venture, 외국인 최소 지분율 30%), FE(Foreign Enterprise, 외국인 지분 100%) 형태로 등록
    - \* Joint-Stock Company : 법정 자본금이 US\$ 40만 이상 기업(기업등록 당일 우즈베키 중앙은행 환율 적용)
  - 기업 소재지 Agency of State Service에 등록
- 외국 자본참여기업(EWFCP: Enterprise with Foreign Capital Participation)
  - 기업 소유주 또는 주주 중 한 명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인 기업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등록
  - 외국인 투자로는 인정되지 않고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시,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투자신고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

동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 최소 납입 자본금 우즈벡 현지화인 6억 솜 이상
- 1인 이상의 외국 법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돼야 함.
- 외국인의 수권자본금(charter capital) 보유 지분율 30% 이상

상기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주, 시,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외국자본참여기업(EWFCP: Enterprise with Foreign Capital Participation)으로 간주된다. 투자신고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 2) 외국인 투자자의 준수사항 및 권리 보장

- 외국인 투자자의 준수사항
  -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을 준수할 것

- 세금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것
- 투자 계약상의 의무를 지킬 것
- 위생, 환경 기타 다른 조건상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
- 경쟁업체에 비해 추가적인 혜택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 경쟁업체나 관련 행정기관에 불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것

-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금지
  - 법적 안정성 및 평화로운 여가활동
  - 국유화의 원칙적 금지. 단, 내각령에 의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한적 범위내에서의 국유화는 가능하나, 이 경우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 충분한 보호와 보안
  - 국가적 차원의 대우
  -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 송금 및 본국 송환의 원칙적 보장. 단, 모든 세금과 부담금이 납부되는 경우에 한한다.
  - 공개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 외국인을 고용할 권리 및 외국인 투자자, 그의 대표자, 고용된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전의 자유
  - 재정적 지원, 특별세 제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의 제공 기타 관련 번에 따른 추가 조치 등
  -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결정이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 환경 및 질서,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전용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 주소는 <http://invest.gov.uz>이며, 우즈벡어 이외에도 영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 투자인센티브

우즈베키스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charter capital) 지분의 최소 30%를 소유해야 하며, 인센티브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의 경우 투자금 40만 달러 이상(금융기관 제외), 그 외 일반기업의 경우 투자금 15만 달러 이상(카라칼 파키스탄, 호레즘주는 자본금 7만5,000달러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는 경화, 신형 설비로 법인 등록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세금감면(법인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 개선세, 도로 펀드 납입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산업과 특정 지역 투자의 경우 투자건별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기업 간 계약에 기초해 특별규정(decree)의 형태로 혜택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투자 시 정부와의 협상도 중요하다. 실제로 협상 여하에 따라 동종 업체 간에도 인센티브 수혜 폭에 차이가 많다.

### 1)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및 관세 혜택

- 부가가치세/특소세 면제(또는 환급) : 해외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조달한 원부자재
- 법인세, 부동산세 감면 : 총매출 중 수출 비중 15~30% 기업은 30%, 수출 비중 30% 이상 기업은 50%까지 감면
- 관세면제(\*환급 개념은 없음. 따라서 일단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은 안 됨)
  -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자본참여기업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산업/기술 자산
  - 투자금액 5,000만 달러 이상 투자법인이 자사의 생산에 필요해 수입하는 부품, 원부자재
  - 생산분배계약(PSA)에 의해 외국 투자자가 프로젝트 서류상에 적시한 범위내에서 수입한 상품, 노동, 서비스
  - 생산분배계약(PSA)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 투자자의 상품
  -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설비, 부품 수입 (\*투자법인등록 후 2년 내까지 유효)

- 타슈켄트시와 주 이외 지역에서 특정 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대상 산업(생산업): 전자, 가죽제품, 섬유, 봉제, 비단, 건자재, 식품, 화학제품, 제약, 포장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석탄, 산업 및 농업기계, 유리, 미생물 제품, 비고무 완구제품 등
  - 투자금 30만 달러 이상 시 3년간, 3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5년,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7년 세금감면(tax holiday)
  - 투자물은 경화 또는 최신 현대 설비
  - 수혜조건: 외국인지분 33% 이상, 세금혜택으로 절감한 금액의 50% 이상 재투자, 정부의 지급보증 불요구

### 3) 원유 및 가스 탐사. 채굴업 투자기업 인센티브(합작투자 또는 협정에 의한 투자)

- 투자기업 및 하청 업체들에 탐사기간 중 일체의 세금 및 비세금성 각종 납부금 면제.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우즈베크 기업에는 부가세 면제 혜택 부여
- 채굴 개시 시점으로부터 7년간 소득세 면제

### 4) 비세제 혜택

- 기반설비 지원
  - 투자금 5,0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 시 정부가 외부 유틸리티, 공사, 통신망 설비 제공

### 5) 개별 법령에 의한 투자 인센티브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시행령과 법령에 의해 투자유형에 따라 투자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 제한 및 금지(업종)

### 1) 외국인투자제한

법률상 명문화된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는 '정부기관의 특별허가를 득해야 하는 분야'로 규정돼 있는데, 해당 산업 및 산업별 승인·심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 내각 회의
  -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제조, 수리, 판매
  - 폭발물, 유독물질의 제조, 운송 및 판매
- 전력청
  -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가공, 판매
  - 파이프라인, 교량, 터널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
- 내무부
  -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 화재경보시설의 설계, 운영, 수리
- 보건부
  -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
- 중앙은행
  - 은행, 증권, 보험업

## 2)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 ○ 지분 규제

1998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내각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동 조항은 삭제돼 100% 외국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단, 외국인 투자기업이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각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산위원회(Committee for State Property)의 사전 결정이 요구된다.

100% 외국인 소유 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현지 정부기관이나 민관기업과 합작투자형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영화 시에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국산화 의무 및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일반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외국 기업의 투자 허가 시 동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 취득이 불가하다. 단, 외교단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는 대표자 관저를 비롯한 업무용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회사(법인) 및 외국인은 부동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보유사용권 획득 시 토지법에 따라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보유사용권은 엄밀하게 소유권은 아니나 계약당사자인 정부와 협상 여하에 따라 영구보유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어 실제 소유권과 구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을 시, 이에 상응하는 사회개발기금, 개발 후 기부채납 등을 계약 내용에 삽입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기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또는 법인이 동 토지의 보유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토지관리위원회는 어떠한 개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 매매는 불가하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다)

### ○ 금융상의 제한

- 외환통제: 2017년 9월 2일부로 단행된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외국환의 환전 및 대외송금 제한은 거의 사라졌다. 과실 송금의 경우도 은행에 신청 후 3일 정도 경과 후 처리가 될 정도로 편리해졌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국외에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모든 결제는 자국 통화인 솜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 현금 결제 및 인출 제한: 기업 간의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영내에서의 외국환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현지화인 솜화로만 결제하도록 되어 있다. 은행에 예치된 자사의 자금이라도 현금으로는 급여,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에 한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기업은 계좌개설을 할 때 연간 현금필요액을 은행에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인출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현금인출 대신 직불카드에 급여를 이체시켜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경화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 및 자금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현금 유통은 줄이고 은행을 통한 거래를 확산시키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 나.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3개의 특별경제구역(FIEZ Navoi, FIZ Angren, FIZ Jizakh)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 서명함에 따라 우르구트(사마르칸트주), 기취두반(부하라주), 코칸드(페르가나주), 하자라습(호레즘주) 등 4곳에 추가적으로 자유경제구역 설치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령에는 수르한다리아주, 타슈켄트주, 지작주, 시르다리아주, 카라칼팍스탄 독립주 등의 7개의 제약산업단지 조성도 포함돼 있다.

## 산업단지

○ 나보이 경제특구

규모	564헥타르
위치	카르마나 구, 나보이(Navoi) 주
임차료	경제특구 내 부지는 투자자에게 별도의 임차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며 투자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 인프라 개발세, 도로기금 및 학교기금이 면제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액 30만~300만 달러 : 3년</li> <li>○ 투자액 300~500만 달러: 5년</li> <li>○ 투자액 500~1,000만 달러: 7년</li> <li>○ 투자액 1,000만 달러 초과: 10년</li> </ul>
관할기관 및 연락처	1) 관할기관: Directorate of the Navoi Free Economic Zone (Navoi FE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락처</li> <li>- 디렉터</li> <li>* Tel: +998)79 220 00 20</li> <li>* E-mail: fayziev@feznavoi.uz</li> <li>- 투자관계수석전문가</li> <li>* Tel: +998)79 220 00 22</li> <li>* E-mail: djumaev@feznavoi.uz</li> </ul>
비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08년 12월 나보이 지역을 우즈베키스탄의 첫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한항공과의 협력을 통해 나보이 공항을 중앙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키우고, 물류기지로서의 공항과 경제특구를 상호 시너지 효과로 결합시켜 한국과 같은 경제발전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은 사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나보이 경제특구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선호도를 높이고 첨단산업기지 건설 및 사회 인프라 구축, 국가의 산업 잠재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나보이 국제공항을 위탁 경영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선진 물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자동차 가스 실린더, 밸브, 조인트 및 폴리머를 생산하는 업체 두 곳이 설립됐으며 15개 이상의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나보이 경제특구에 투자한 기업(최소 투자액 300만 유로 이상)은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감면, 외환 및 외국인 체류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보이 경제특구 입주대상 산업 분야는 총 5개 산업군이며, 입주 시 인센티브는 하기 내용과 같다. 2015/16년에는 기재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me) 과제로 나보이 입주기업의 수출 확대 방안이 선정돼 연구, 제안이 이뤄지기도 했다.  2) 나보이 경제특구 입주대상 산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전자제품(electronic &amp;electrical products)</li> <li>○ 정밀기계 및 자동차 OEM 부품(precision machineries &amp;OEM parts for automobiles)</li> <li>○ 의약품 및 의료제품(pharmaceutical industry &amp;medical products)</li> <li>○ 식품 가공 및 포장(food processing &amp;packaging)</li> <li>○ 플라스틱 및 폴리머(plastic goods and polymers)</li> </ul>

○ 안그렌 특별산업지구

규모	1638헥타르
위치	안그렌(Angren) 지역

<p><b>임차료</b></p>	<p>특별산업지구 내 부지는 투자자에게 별도의 임차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며 투자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 인프라 개발세, 도로기금 및 학교기금이 면제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액 30만~300만 달러 : 3년</li> <li>○ 투자액 300~500만 달러: 5년</li> <li>○ 투자액 500~1,000만 달러: 7년</li> <li>○ 투자액 1,000만 달러 초과: 10년</li> </ul>
<p><b>관할기관 및 연락처</b></p>	<p>1) 관할기관: Directorate of the Special Industrial Zone "Angren" (Angren SIZ)</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렉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 +998)93 180 12 02</li> </ul> </li> <li>- 투자관계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 +998)90 330 44 66</li> </ul> </li> </ul> </li> </ul>
<p><b>비고</b></p>	<p>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제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지난 2012년 4월 안그렌 특별공업지구 설치령을 제정했다. 교통, 통신, 전력, 도로, 수도시설 등의 인프라 시설 구축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통신 발전 내각결의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안그렌 특별공업지구 내 상하수도, 전력, 도로, 철도, 가스 공급 등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됐다.</p> <p>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약 6,000만 달러를 투자해, 경제특구 내의 공장 가동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3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그렌 FEZ의 투자유치 우선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공업, 기계 제조, 화학/석유화학, 제약, 식료품 제조 및 과일/채소 가공업, 건축자재 생산, 가죽/신발 생산</li> </ul> </li> </ul>

○ 지작 특별산업지구

<p><b>규모</b></p>	<p>524헥타르</p>
<p><b>위치</b></p>	<p>지작(Jizzakh) 지역</p>
<p><b>임차료</b></p>	<p>특별산업지구 내 부지는 투자자에게 별도의 임차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며 투자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 인프라 개발세, 도로기금 및 학교기금이 면제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액 30만~300만 달러 : 3년</li> <li>○ 투자액 300~500만 달러: 5년</li> <li>○ 투자액 500~1,000만 달러: 7년</li> <li>○ 투자액 1,000만 달러 초과: 10년</li> </ul>
<p><b>관할기관 및 연락처</b></p>	<p>1) 관할기관: Directorate of the Special Industrial Zone "Jizzakh" (Jizzakh SIZ)</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 +998)72 221 04 41~44</li> </ul> </li> </ul>

<b>비고</b>	<p>지작 특구는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삼총사 중 가장 늦게 설립된 곳으로, 2013년 3월 18일 우즈베키스탄故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지작 특별산업지구 조성'에 관한 결의안에 서명해 2013년 5월에 설립됐다. 위 결의안에 따르면 지작 특별산업지구는 지작 및 시르다리아 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며, 지작 특별산업지구는 하이테크 및 혁신적인 생산기법 도입을 통해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자리 창출, 국내 생산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작 특별산업지구는 30년간 지정됐으나 추후 연장이 가능하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는 세금 및 관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p> <p>한편, 2013년 7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지작 특별산업지구 운송, 생산, 기술 인프라 구축 도입 방안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총 4,831만 달러 규모의 약 17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개발에 2,033만 달러, 철도 개발 225만 달러, 식수 공급과 관개 및 하수 시스템 2,480만 달러, 전력 40만 달러, 가스공급 50만 달러가 투입될 것이며, 비용은 국가 예산 2,137만 달러, 기업자본 294만 달러, 국제기구차입 459만 달러로 조달된다.</p> <p>아울러, 2013년 10월에는 지작지역 도시개발 계획에 승인했다. 계획에 의하면 북-동부 지역에 새로운 지구를 건설함으로써 주거지역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인프라 구축 및 조경사업을 포함한 도시의 역사적 기념물 근처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해당 지구에는 2016년 5월 기준 20개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됐고, 투자 규모는 1억62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중 해외직접투자는 5,73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5개의 중국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p>
-----------	--

<자료원 : 해당 산업단지 및 주재국 언론보도 종합>

## 주요 지역별 여건

### ○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 1) 경제 발전 상태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2018년 9월까지의 GRP는 8조 1,939억 솜으로, 지난해 대비 4.8% 성장한 수치이다. 건설 4.4%, 농림수산업 0.8%, 산업 3.5%, 서비스업 6.7% 증가하여 1인당 GRP는 3.3% 증가한 442만 5,100솜 기록했다. 화학, 석유화학, 식품, 섬유 및 의류 산업, 건설업 분야가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다. 소규모 비즈니스 또한 발전하고 있다. 2018년 9월 기준, 중·소규모 비즈니스는 카라칼팍스탄 GRP의 48.3% 차지하며 1천명 당 11개의 중·소규모 비즈니스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 인문 여건

수도 누쿠스 시와 15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8년 기준 인구수는 186만 1,200명이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총 인구의 5.6%에 해당한다. 총 110개의 교육기관 중 6개의 대학교, 94개의 전문대 및 10개의 학교가 있다.

#### 3) 농업

하절기 평균 기온은 27°C, 동절기 평균 기온은 -6°C 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00mm이다. 주요 재배 작물로 메론, 감자, 밀 등이 있다. 2018년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농업 생산량은 2조 4천만 솜이며 우즈베키스탄 총 농업 생산량의 3.4%를 차지한다. 2018년, 고치가 606.9 톤, 밀이 18만 4,400 톤, 감자가 4만 8,600 톤, 포도 5천 톤, 메론 9만 8,100 톤, 우유 22만 800 톤, 설육 7만 6,700 톤, 달걀 2억 1,060만 개 생산되었다.

#### 4) 광물 및 원료 산업

Beruniy 지역에 활석 618만 8천 톤, 시멘트 원재료 4,854만 5천 m<sup>3</sup>, Karauziak 지역에 질석 9만 9,900톤이 매장되어 있고 그 외 다량의 건축자재(칼륨, 인화암, 벽돌 원재료, 석고, 라임스톤 등)들이 매장되어 있다.

#### 5) 산업 잠재력

2017년 24헥타르 규모의 Nukus Farm 자유경제지구(FEZ) 설립되었다. 공항에서 9km, 기차역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은 토지세, 소득세, 법인세, 도로교통기금 등 다양한 납세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 외 Muynak, Amudarya, Beruni, Kungrad, Takhiatash, Hodjyli, Chimbay 지역에 소형 산업 지구(SIZ)가 설립되었다.

#### 6) 해외 투자

2017년 91개의 해외투자기업들이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 러시아, 한국, 영국 및 카자흐스탄 자본이다. 주요 산업 분야는 감초 뿌리 가공, 경공업 제품 생산, 건축 자재 생산, 석유 및 가스 산업 및 서비스이다.

## ○ 안디잔(Andijan)

### 1) 경제 발전 상태

안디잔 지역의 2018년 9월까지의 GRP는 13조 1,779억 솜으로, 지난해 대비 8.3% 성장한 수치이다. 건설 5.8%, 농업 생산량 0.4%, 산업 28.1%, 서비스업 4.1% 증가하여 1인당 GRP는 442만 5,100솜 기록했다. 자동차, 소비재 산업, 섬유 및 의류 산업, 건설업 분야가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다. 소규모 비즈니스 또한 발전하고 있다. 2018년 9월 기준, 중·소규모 비즈니스는 안디잔 GRP의 65.4% 차지하며 1천 명 당 12개의 중·소규모 비즈니스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 인문 여건

2개의 주요 도시(Andijan, Khanabad)와 14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8년 기준 인구수는 305만 500명이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총인구의 9.2%에 해당한다. 총 132개의 교육기관 중 4개의 대학교, 119개의 전문대 및 9개의 학교가 있다.

### 3) 농업

안디잔 지역은 매우 건조하며 대륙성 기후로 하절기 평균 기온 27°C, 동절기 평균 기온 -3°C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00~250mm이다. 지역 내 영양 생장기는 273일이다. 면화, 누에고치, 과일 및 채소, 멜론 재배에 적합한 기후여건을 갖추고 있다. 주요 재배 작물로 멜론, 원예, 면화 등이 있으며, 양, 소, 말 등의 사육을 중심으로 축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2018년 9월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안디잔 지역의 농업 총 생산량은 5조 6,228억 솜 규모로 우즈베키스탄 농업 총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며 4위를 기록했다.

2018년, 고치가 2450.6 톤, 밀이 55만 톤, 감자가 21만 9,300톤, 포도 5만 800톤, 멜론 6만 9,700톤, 우유 54만 900톤, 육류 11만 400톤, 달걀 3억 7,200만 개 생산되었다.

### 4) 광물 및 원료 산업

안디잔 지역의 주요 광물자원은 모래, 자갈이다. 또한, 2,420만㎡의 벽돌 원재료가 매장되어 있으며, 주로 Khanabad, Marhamat, Pahtaobod, Hudjaobod, Izbaskan, Kurgantepa에 매장되어 있다. Andijan 및 Bulakbashi 지역에 5,270만㎡의 라임스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Andijan, Asaka, Pahtaobadskom, Shahrikhon, Bulakabashi에 미네랄워터가 매장되어 있다.

### 5) 산업 잠재력

기계 공학, 자동차, 전력, 경공업 및 식품산업, 생화학 산업이 동 지역에서 큰 발전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기술 발전은 동 산업에서 고품질 제품 생산을 가능케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6) 자동차 산업

"UzDaewooAuto" 활동이 1996년 7월 시작되었다. 매년 25만 대의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GM Uzbekistan은 지역 내 가장 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공장 부지는 72헥타르이며 생산 한도는 월 250,000대이다. 2018년 현재 주로 Matiz, Spark(R2), Nexia(R3), Cobalt(R4), Lacetti(Gentra) 모델 생산 중이다.

### 7) 해외 투자

독립 이후 13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 자본을 유치했으며 2018년 고정자본투자 금액은 총 3조 538억 솜이며 그중 20.8%가 해외 투자 자본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기준 안디잔에서 활동하는 해외 자본 기업 173개, 해외 기업 18개, 합작회사는 155개이다.

## ○ 사마르칸트(Samarkand)

### 1) 경제 발전 상태

사마르칸트 지역의 2018년 9월까지의 GRP는 15조 6,230억 솜으로, 지난해 대비 2.9% 성장한 수치이다. 건설 9.6%, 산업 5.3%, 서비스업 4.9% 증가하였지만, 농림수산업은 2.5% 하락하여 1인당 GRP는 지난해 대비 0.9% 증가한 416만 7,300솜 기록했다. 식품, 섬유 및 의류 산업이 사마르칸트 지역의 주요 산업이다. 소규모 비즈니스 또한 발전하고 있다. 2018년 9월 기준, 중·소규모 비즈니스 생산량은 사마르칸트 지역 GRP의 70.7% 차지하였고 1천 명 당 10.9개의 중·소규모 비즈니스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 인문 여건

사마르칸트 시를 포함한 14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8년 기준 인구수는 377만 7,800명이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총인구의 11.4%에 해당한다

### 3) 농업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농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연평균 기온은 16.5 °C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310~330mm이며 영양 생장기는 218~220일이다. 대표적인 농산물은 면화, 담배, 아마, 밀, 멜론 등이 있다. Urgut 지역은 우즈베키스탄 담배의 96%를 생산한다. 2018년 9월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사마르칸트 지역의 농업 총 생산량은 7조 7,236억 슝 규모로 우즈베키스탄 농업 총 생산량의 13.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고치가 2241.1 톤, 밀이 61만 400톤, 감자가 49만 2,300톤, 포도 46만 5,400톤, 멜론 10만 톤, 우유 102만 6,100톤, 설육 21만 7,200톤, 달걀 11억 8,360만 개 생산되었다.

### 4) 광물 및 원료 산업

2017년 1월 1일 기준, 사마르칸트 지역에는 총 87개의 광물 매장지가 있다. 석고 380만 톤, 시멘트 원료 29억 4,400만 톤, 벽돌 원재료 1억 4,480만㎡, 모래-자갈 혼합물 1억720만㎡, 고령토 370만 톤, 실리콘 원재료 6만 톤, 세라믹 점토 270만 톤 등이 매장되어 있다.

### 5) 산업 현황

#### ○ 섬유 산업

2016년 3월에 시행된 80억 슝 규모의 프로젝트 기업 "SAMARKAND EURO ASIA TEXTILE" LTD는 남성용 셔츠를 연간 120만 장 생산, 러시아로 일부 수출하고 있다. 직원은 약 150명이다.

#### ○ 관광 산업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1,851개의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85개의 여행사, 107개의 호텔이 운영 중이다.

#### ○ 자동차 산업

- "JV MAN Auto-Uzbekistan": 2009년 8월 7일 시행된 7천만 유로 규모의 "Uzautosanoat" SJC와 독일 "MAN Truck & Bus AG"의 합작 프로젝트 기업이다. 연간 3,000대의 트럭 및 버스를 생산하고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인접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2017년 수출량은 570만 달러 규모이다. 직원은 약 300명이다.

- "SAMARKAND AUTOMOBILE FACTORY" LTD: "SAMARKAND AUTOMOBILE FACTORY" LTD는 1조 슝 규모의 "Uzautosanoat" AT, "Asaka" 은행, 일본의 "ITOCHU Corporation", "ISUZU MOTORS"의 합작 프로젝트 기업이다. 연간 4,000대의 버스를 생산하고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인접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직원 수는 약 980명이다.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외국인직접투자

###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634.7	757.36	66.49	133.39	95.77

<자료원 : UNCTAD Stat>

###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	..	..	..	..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기업 투자

####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46	12	16,783	48	11,602
2015	26	7	18,295	21	8,698
2016	56	21	32,242	39	26,824
2017	27	11	11,274	32	7,233
2018	59	26	41,602	59	10,33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2	0	2,777	5	1,331
제조업	15	5	5,055	26	8,047
건설업	7	3	426	4	111
도매 및 소매업	7	0	900	3	553
운수 및 창고업	1	1	1	1	1
부동산업	4	1	5,007	2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1	1,583	5	1,52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1	1,034	2	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1	0	100	3	40
제조업	10	3	7,547	9	4,500
건설업	1	0	0	0	0
도매 및 소매업	0	1	0	1	5
운수 및 창고업	3	1	182	2	176
정보통신업	2	1	4,153	3	3,814
금융 및 보험업	1	0	6,000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0	60	1	5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0	133	1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	80	1	8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0	4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1	0	100	5	24
제조업	24	9	28,947	18	26,213
건설업	16	5	1,020	6	45
도매 및 소매업	6	3	477	5	190
운수 및 창고업	1	1	11	1	3
정보통신업	1	1	50	2	333
금융 및 보험업	1	0	1,602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1	1	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4	0	34	0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0	1	0	1	15
N/A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2	0	3,600	7	3,618
제조업	9	3	5,837	11	1,711
건설업	5	1	4	1	2
도매 및 소매업	2	2	200	8	242
운수 및 창고업	2	1	8	1	3
정보통신업	1	0	0	0	0
금융 및 보험업	1	2	941	2	1,485
부동산업	1	1	150	1	1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1	22	1	22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	0	512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4	2	477	3	476
광업	2	1	175	4	95
제조업	12	7	14,870	13	1,568
건설업	10	4	12,606	10	1,205
도매 및 소매업	12	3	2,940	13	2,899

운수 및 창고업	2	1	12	1	1
정보통신업	3	2	200	3	28
금융 및 보험업	1	0	6,739	0	0
부동산업	3	2	1,660	3	1,6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	2	113	4	8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1	960	3	9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850	2	1,362
N/A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 우즈신동실리콘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메탈 실리콘
모기업명	신동에너지

##### ○ 우즈코가스케미칼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천연가스 및 폴리머(HDPE, PP) 생산 및 판매
모기업명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칼, GS E&R

##### ○ 우즈동주

진출년도	199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페인트
모기업명	카이온인터네셔널(주)

○ 글로벌콤스코대우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면펄프 생산판매
모기업명	한국조폐공사, 포스코대우

○ 신동방적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섬유제품
모기업명	신동에너콤

○ 포스코대우우즈벡면방법인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면사 등
모기업명	포스코대우

○ 영원무역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봉제
모기업명	영원무역

○ 광진오토시스템즈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부품(윈도우레귤레이터)
모기업명	광진기계

○ 우즈성우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차체
모기업명	성우하이텍

○ 우즈거제

진출년도	200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전기 배선 장치
모기업명	이래CS

○ 우즈동양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내장부품
모기업명	동광기연

○ 우즈동원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머플러
모기업명	동원금속

○ 우즈동흥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시트
모기업명	KM&I

○ 우즈세명

진출년도	199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차체제품 및 연료탱크
모기업명	이래CS

○ 우즈이래CC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공조부품
모기업명	이래CS

○ 우즈이래알터네이터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장&압축부품
모기업명	이래CS

○ 우즈이래케이블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전선
모기업명	이래CS

○ 우즈체시스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외장램프
모기업명	AMS

○ 우즈한우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한우글로벌

○ HS&K 건축사사무소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설계, 감리 등
모기업명	HS&K Architects Group

○ 소망디벨로프먼트코리아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소망글로벌

○ 포스코건설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토목, 건축 등
모기업명	포스코건설

○ 산업은행 우즈베키스탄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보험업
취급분야	예금, 무역금융, 기업금융 등
모기업명	KDB산업은행

○ 슈퍼아이맥스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취급분야	무선인터넷서비스
모기업명	KT

○ 이스트텔레콤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취급분야	통신서비스
모기업명	KT

○ 선진익스프레스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운수업
모기업명	신정코리아

○ 에코비스로지스틱스

진출년도	199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전자제품 유통 등
모기업명	에코비스

○ 한진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운송
모기업명	한진

○ 현대건설

진출년도	201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종합건설
모기업명	현대건설

○ 한국석유공사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취급분야	원유 탐사 등
모기업명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진출년도	2000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취급분야	수출입금융지원
모기업명	한국수출입은행

○ LG전자

진출년도	199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LG전자

○ 삼성전자

진출년도	199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포스코대우

진출년도	199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무역, 투자 등
모기업명	포스코대우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산업인력 송출 서비스
모기업명	한국산업인력공단

○ 법무법인 화우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법률서비스
모기업명	법무법인 화우

○ 대한항공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운송
모기업명	대한항공

○ 판토스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판토스

○ 서중물류

진출년도	200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서중그룹

○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 유라시아레일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유라시아레일

○ 태웅우즈베키스탄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태웅로직스

○ 태웅인터네셔널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국내외 운송, 통관, 도매업, 서비스대행
모기업명	태웅로직스

○ 현대엔지니어링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화공 및 전력 프로젝트 수행
모기업명	현대엔지니어링

○ 토우

진출년도	199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두산중공업 딜러, 삼성전자 A/S 운영, 무역 등
모기업명	해록물산

○ 아시아나항공

진출년도	1997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운송
모기업명	아시아나항공

○ 호텔롯데

진출년도	2013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숙박
모기업명	호텔롯데

○ 비아이디씨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해상 및 철도, 육로를 통한 복합운송주선, 통관 및 포장을 포함한 창고 운영, 조선기자재 제조, 배송센터 운영 등
모기업명	비아이디씨

○ 씨제이아이씨엠로지스틱스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물류창고업
모기업명	CJ대한통운

○ 케이티

진출년도	201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통신 및 ICT
모기업명	KT

○ 케이와이엘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케이와이엘

○ KPMG우즈베키스탄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회계감사, 세무 자문, 컨설팅
모기업명	KPMG 러시아

○ 우즈오스템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Chassis, Steel Wheels, Control Arms
모기업명	오스템

○ 우즈오토인지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알루미늄 고압 다이캐스팅, 자동차 엔진 부품(헤드커버, 오일팬, 타이밍체인커버, 브라켓 등)
모기업명	인지에이엠티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진출년도	201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건축엔지니어링
모기업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유피알로지스틱스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주재원 이주화물, 일반 상업화물 등 물류
모기업명	유피알로지스틱스

<자료원 : KOTRA 2018년 해외진출 디렉토리>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진출방식

### 가. 투자진출 형태

#### 법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립 가능한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추가 책임회사, 일반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기업연합 혹은 협회 그리고 개인 기업 등이 있다.

#### 지사

지사는 외국 법인의 부속기관으로 영업활동을 포함해 외국 모기업의 활동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사는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립되며, 최소자본금 등 외국 자본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는 외국 법인의 부속기관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개인이 관리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관련 세금 면제나 제도 간편화 등의 영업행위에 유리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나보이나 안그렌 등 경제특구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더욱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투자 기간이나 투자액 등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많다. 반면 연락사무소의 경우 혜택이 적은 만큼 의무사항도 적으므로, 현지에서 크게 활동하지 않는 회사의 투자방식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회사 유형

#### 주식회사

##### 1) 주식회사(JSC: Joint Stock Company)

###### ○ 정의

주식회사란 주주가 주식의 액면가치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로, 보유 주식 대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못한 주주는 미납 주식 가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의 의무에 대한 각종 책임을 지게 된다. 주식회사는 폐쇄 혹은 개방 형태일 수 있으며, 개방형태의 경우 최소 주주 숫자에 제한이 없으나, 폐쇄형태일 경우 최소 3명 이상 50인 미만의 주주로 구성돼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여타 주주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개방형태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법에 따라 주식 공개 매각을 통해 자유롭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회사 정관 혹은 주식회사 법에 따라 폐쇄 매각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폐쇄 매각을 할 수도 있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식은 설립자들 상호 간에 한해 혹은 사전 결정된 사람들에 한해 배분될 수 있으며, 전체 주주 숫자는 50명을 넘지 못한다. 전체 주주 숫자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공개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는 제한되며 증시에 상장될 수 없고,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 양도를 원할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다른 기존 주주 혹은 법인 자체에 대해서만 매각이 가능하다.

###### ○ 설립 자본금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주주들이 매입한 주식의 액면 가격으로 결정되며, 모든 주식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우선주 액면 가격은 전체 설립 자본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40만 달러(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고시 환율에 따라) 이상이어야 하며,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의 200배 이상이어야 한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 기준 변화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액면가격 인하 혹은 발행주식 감소 등을 통해 감소되거나, 주식 액면가격 인상 혹은 발행주식 증가 등을 통해 증가될 수 있다.

#### ○ 주식

주식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혹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우선주 혹은 보통주 형태로 발행될 수 있고 최저 액면 가액은 100 쉐이다. 우선주는 우선주 보유 주주가 주식 회사법에 명시된 대로 이익 배당금 혹은 기타 권리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폐쇄형태 주식회사는 기명 주식만 발행 가능하다. 주주는 납입금의 30%를 먼저 낸 후 주식회사 등록 후 1년 이내에 주식대금을 완전히 납입해야 하며, 주식대금 납입은 현금, 유가증권 그리고 기타 자산 혹은 재산권 형태로 가능하다. 주식회사 자체가 매입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 배당금도 받지 못하고, 매입 1년 이내에 재매각되지 않을 경우 소각돼 그만큼 납입 자본금이 감소돼야 한다.

주식 배분 형태 및 기준은 회사 정관에 명시된다. 주식은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돼야 하며, 회사 설립 당시에는 액면가로 매각된다. 주식회사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거나 주주총회 의결 내용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모든 주주들은 주주명부에 등록돼야 하며, 여기에는 총 발행주식, 액면가, 주주 보유 등록 증권 형태 등이 명시돼야 한다.

#### ○ 주주총회(GM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 법상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있고, 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소집돼야 한다. 주주총회의 배타적 권한사항은 주로 회사의 운영, 행정, 영리활동, 구조, 재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식 회사법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로 정해진 주주총회의 배타적 권한사항은 이사회 또는 집행기관에 이양할 수 없다. 주주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60% 이상이 참석한 경우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고, 대리인을 통한 출석 및 의결권 행사도 허용된다. 대부분의 사항에 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되나, 일부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주식 회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75%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 ○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감독이사회는 주식 회사법이나 정관이 주주총회의 배타적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문제들 외의 전반적인 경영사항에 관해 결정하는 기관이다. 감독이사회의 및 감독협의회 의장의 선임, 감독이사회 소집과 기타 감독이사회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정관 또는 회사 내부규칙에 따라 규정된다. 주식회사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30명 미만인 경우 감독이사회를 둘 필요가 없고, 감독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감독이사회의 결정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 경영진(Executive Body)

경영진은 최고경영자(CEO) 혹은 집단경영의 경우 최고경영진을 통해 회사의 일상활동을 관장하며,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진은 주주총회나 감독이사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 혹은 회사 정관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그들의 경영행위에 대해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된다.

#### ○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인 감사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집행기관 및 감독이사회 임원(감독이사회가 있는 경우)의 재무활동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권한은 주식 회사법, 회사 정관 및 주주총회가 승인한 내부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활동에 대해 연간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주주총회, 감독이사회, 보통주 10% 이상을 가진 주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감독이사회 임원, 집행기관 및 기타 회사의 다른 지위를 겸할 수 없다.

## 유한책임회사

### 1)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 정의

유한회사는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나누어 설립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인 혹은 2개 이상의 법인들의 유한회사 설립문서가 설립 동의 및 회사 정관이 된다. 1인이 설립할 경우 설립문서는 바로 회사 정관이 된다. 유한회사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경영활동 관련 위험에 대해 납입 자본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납입해야 할 자본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않은 설립 참가자들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회사의 책임은 보유자산에 국한된다.

#### ○ 자본금

유한회사 설립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의 40배 이상(2018.7월 최저임금 184,300숨) 이어야 한다. 모든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등록 시점에서 납입 신고 자본금의 30%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 증명은 은행 발행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고 잔여 납입 자본금은 1년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된 경우에 따라, 회사 최고 기구가 승인한 납입 자본금의 변화 및 설립 참가자들의 추가 자본납입은 회사 납입 자본금에 대한 설립 참가자들의 보유 지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

#### ○ 사원총회

유한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다. 사원총회는 우즈베키스탄 유한회사법에서 최고경영기구의 기능이라고 명시한 특정 사안들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사원총회의 고유권한은 주로 회사의 영업, 재정, 경영 및 구조적 사안들에 대해 망라하며 사원총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소집된다. 의결권 10%를 보유한 설립 참가자들은 언제라도 비상 사원총회 소집 요구 권한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안들은 회의 참석자들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되며, 회사의 주요 방향 및 영업 정책 혹은 다른 법인에 대한 경영 참가 등과 같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66%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회사 정관 개정 및 납입 자본금 증감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감독이사회 설립 의무가 없으나, 회사 설립문서에 감독이사회 설립을 명시해 설립이 가능하다.

####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혹은 감사)는 유한회사 최고 경영자 혹은 최고 경영진 활동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감독이사회가 있을 경우 이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유한회사는 정관에 회사 및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감사 지정을 명시할 수 있다. 15인 이상이 설립한 유한회사는 감사위원회(감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감독이사회가 존재할 경우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유한회사의 감사(혹은 감사위원)로 선임될 수 없다. 감사위원들은 보통 사원총회 참석자들 중 선임되나, 회사 혹은 설립 참가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도 유한회사의 감사(혹은 감사위원)로 선임될 수 있다.

감사위원 수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다. 감사위원은 보통 유한회사의 연간 경영실적 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확인, 사원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 또한 연간경영실적보고서 및 재무제표 감사 및 승인은 회사 혹은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감사가 수행해야 한다.

#### ○ 추가 책임회사(ALC: Additional Liability Company)

추가 책임회사는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설립하는 회사로 납입자본금을 설립자들 간에 분배,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한다.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추가 책임회사 또한 유가증권 형태의 주식 발행이 금지되며, 회사 설립문서 또한 유한회사와 동일하다. 추가 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기구 구조가 동일하나 주된 차이점은 설립 참가자들의 책임 범위로, 납입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회

사와는 달리 추가 책임회사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회사와는 달리, 추가 책임회사의 설립문서에는 설립 참가자들이 납입자본금의 몇 배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 범위는 모든 설립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배수가 적용된다. 만약 설립 참가자들 중 1인(혹은 1개 법인)이 회사 경영 책임으로 파산하게 되면, 설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나머지 설립 참가자들이 자본금 납입 비율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나누어지게 된다.

### 3) 합자회사(Partnerships)

#### ○ 종류

일반 합자회사(GBP: General Business Partnerships)는 회사 설립 참가자들이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유한 합자회사(LBP: Limited Business Partnerships)는 1인 이상의 설립 참가자들이 설립하는 회사로, 자본금을 납입하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납입한 자본금에 한해 책임을 지는 참가자들과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하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설립 참가자들도 구성된다. 유한책임 참가자와 무한책임 참가자는 구분되며 검할 수 없다. 즉 유한책임 참가자가 무한책임 참가자로서의 추가 자본 납입은 금지된다.

#### ○ 납입자본금 및 설립문서

합자회사는 창업 합의 문서가 곧 회사 설립문서가 된다. 납입 자본금은 최소 월 최저 임금의 40배 이상이어야 한다.

#### ○ 설립 참가자들의 권리

합자회사 회사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창업 합의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파트너십을 탈퇴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탈퇴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합자회사의 경영은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립 참가자들만 참가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인 회사(Private Enterprises) 제도는 2003년 '개인 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개인회사는 개인이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회사를 말하며, 설립자가 회사 정관을 승인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립자는 회사 경영과 관련해 회사 자산 범위 이외의 추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외국인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이 설립한 개인회사는 외국자본이 설립한 여타 형태의 회사들에 대해 부여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개인회사는 납입자본금 및 기업 경영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설립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현금,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자산 형태로 가능하다. 개인회사는 설립자가 소유자로 경영을 직접 하게 된다.

##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 화우

전화번호	+998-71-238-9032
주소	14F , 107-B Amir Timur Str., 100084, Tashkent, Uzbekistan
홈페이지	<a href="http://www.hwawoo.com">http://www.hwawoo.com</a>
이메일	<a href="mailto:hck@hwawoo.com">hck@hwawoo.com</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변호사 유
--------------	-----------

○ Centillaw

전화번호	+998-71-120-4778
주소	32, T.Shevchenko Str., 100060, Tashkent, Uzbekistan
홈페이지	<a href="http://www.centil.law">http://www.centil.law</a>
이메일	igor.p@colibri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 MYLAWYER

전화번호	+998-71-200-2505
주소	25, Amir Temur Str., 100017, Tashkent, Uzbekistan
홈페이지	<a href="http://mylawyer.uz/en">http://mylawyer.uz/en</a>
이메일	info@mylawyer.u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 원진회계법인

전화번호	02-2038-2015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정화빌딩 8층, 9층
홈페이지	<a href="http://www.wonjinacc.com">http://www.wonjinacc.com</a>
이메일	admin@wonjinac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회계사 유
비고	우즈벡 내 지사 보유

○ KPMG우즈베키스탄

전화번호	+998-71-147-7744
주소	11F, Block A, IBC, 107-B, Amir Temur Avenue,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www.kpmg.ru">http://www.kpmg.ru</a>
이메일	info@kpmg.co.u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회계감사, 회계&세무 자문 등
----	------------------

<자료원 : 각사 홈페이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5. 청산 및 철수

### 관련 법 및 절차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07년 4월 '법인의 자발적 청산 및 사업기관의 해산 절차 개선'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발표됨에 따라 법인 청산절차가 대폭 개정됐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 설립과 철수에 관련한 법령도 개정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절차에 관해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www.lex.uz](http://www.lex.uz)에서 확인 가능)

#### 1) 법인 철수 및 절차

- 해당 기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각 지역의 시청
- 절차 및 관련 서류
  - ① 법인이 소재해 있는 지역 Hokimiyat(시청), 법무부 관련 부서에 철수 및 청산 신청
  - ② 철수 및 청산 신청 후 하기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
    - 청산위원회의 청산 결의안 사본
    - 법인 인장과 대표자(또는 청산위원회 의장) 서명이 기재돼 있는 공증 문서 2분
    - 소유한 모든 계좌를 폐기하며, 남은 자금을 해외 계좌 또는 지정한 계좌로 이체시킬 것임을 기재한 계출서
  - ③ 고용직원, 계약자 및 파트너와의 계약을 종료한 후, 우즈베키스탄 국가세금위원회로부터 세금 미납이 없음을 확인받은 증명서를 수령
  - ④ 기업의 철수 및 청산에 관해 주요 신문에 공고
  - ⑤ 하기 문서들을 Hokimiyat(시청)에 제출
    - 1개 이상의 주요 신문에 기업의 철수 및 청산을 알리는 기사 또는 광고 문건
    - 국가 등록 증명서(사업등록증)
    - 모든 계좌를 해지했음을 알리는 은행이 발행한 통지서
    - 법인 인장
    - 발행된 유가증권을 폐기했음을 알리는 공인기관의 통지서
    - 모든 허가증, 면허증 원본
    - 세금 및 기타 금전상의 의무가 남아있지 않음을 국가세금위원회로부터 인증받은 통지서
    - 국가 담당 부서의 최종 청산 완료 통지

#### 2) 파산절차

- 해당 기관: 우즈베키스탄 경제법원
- 세부절차
  - ① 채무자, 채권자, 검사, 세금위원회는 경제법원에 파산 신청
  - ② 경제법원은 채권자들의 투표에 의거 채권위원회를 구성
    - 채권자들은 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 획득
  - ③ 채권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법원은 파산 선고
  - ④ 파산선고에 따라 다음 4가지 절차 추진 가능
    - 법정관리: 채권자, 정부기관 등의 감독하에 12~24개월 내 추진
    - 합의: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자금회수 연장 등 원만한 합의 결정
    - 외부감독: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외부 감독인 영입 운영
    - 청산: 소유재산 처분 및 채권 환급(청산위원회 구성)

#### 3) 철수 관련 법령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법인 철수 관련 법령은 지난 2007년 4월 발표된 대통령령 제630호 '법인의 자발적 청산 및 사업기관 해산 절차 개선'을 따르고 있으며, 법인 철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www.lex.uz](http://www.lex.uz)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6. 노무

###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8,325.29우즈벡 솜(2018년 12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0
비고	<p>○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에 따른 학력별, 직종별 공식 임금통계는 없다. 참고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8. 1~9월 전 업종 평균 명목임금은 168만 솜(209불)이며, 업종별로는 은행·보험 321만 솜, IT·통신 319만 솜, 제조업 255만 솜, 운송·보관 236만 솜, 건설 214만 솜 등이다.</p> <p>○ 최저임금의 경우 시간당이 아닌 월간 단위로 발표하며, 2018.11.1일 기준 202,730 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초로 급여를 지불하는 사용자는 없으며, 최저임금은 단지 세금이나 벌금 부과 등의 기초 금액으로 활용될 뿐이다. (예: xxx법 위반 시 벌금은 최저임금의 30배로 한다, 기업투자 시 납입자본금은 최저임금의 *배로 한다 등)</p>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나. 노무관리

#### 고용계약

##### 1) 노동법 개관

우즈베키스탄 국민 및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 내 고용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노사관계는 단체 협약 및 개별 고용계약서에 따르며, 고용계약서는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규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국내외 기업들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다.

##### 2) 노동 관련 규정

###### ○ 근로 기록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은 고용주에게 개인 인적사항 및 과거, 현재의 근로 기록 내용이 포함된 근로 기록부(Work Books)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근로 기록부는 종업원의 일시적 질병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해 국가사회보장기금에서 지불되는 금액을 산정함과 아울러 종업원의 국가연금 권리를 결정하기 위해 발급된다. 종업원의 근로 기록부가 없을 경우, 고용주는 고용 개시 5일 이내에 신규 근로 기록부를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 건강검진

사업주는 고용계약 시 사전 의료검사 및 근무 중 체계적 의료검사를 아래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18세 미만 근로자, 60세 이상 남성, 55세 이상 여성, 장애인,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거나, 야간업무 또는 수송 관련 업무를 하는 자
- 식품업-유통업, 그리고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등학교-간호학교 등 아동 교육 및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관의 선생님

### 3) 수습 기간

고용계약 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수습 기간 내에 사용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4) 노동조합

법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불이익 또는 응징을 두려워해 단체교섭권 또는 노조가입을 잘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들은 정부 중심적이며 종속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조합연맹 이사회(Board of the Trade Union Federation of Uzbekistan)은 35,800개의 기초 조직과 14개의 지역 노조가 소속되어 있으며, 공식보고에 의하면 근로자의 60%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통령실에서 노동조합연맹 수뇌부를 지명하며, 노조이사회는 노조 수뇌부 선출에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지역별 및 지역별 산업 노조들은 국가가 통제하며, 독립적인 노조는 없다.

법에서는 파업권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영 광산업 및 에너지 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임금 적시 지불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인 결과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협상 과정에서 공식 노조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은 ILO의 13개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 근로시간

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당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일일 근로시간은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의 동의 시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나, 일부 특정 범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 외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 외 초과근무는 2일간 4시간 혹은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은 시간당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초과근무시간에 비례해 다른 날에 휴가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평균임금의 1배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을 야간으로 간주한다. 일 근무시간의 1/2 이상이 야간에 발생할 경우 야간근무 기간은 1시간 단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생산이 필요해 6일 근로 1일 휴무로 교대제를 하는 경우와 같은 생산조건 하에서 요구되는 경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와 동일하게 본다.

## 휴가

### 1) 휴가

다른 직업을 가진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는 휴식, 근로능력 유지를 위해 연가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업무(직위)를 유지하며 평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공휴일은 연간 9일이며, 연간 유급휴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최소 15일 이상이다. 연령, 건강에 따라, 다음의 경우 기본 연가가 연장되어야 한다.

- 18세 미만인 자: 30일
- 장애인 1급 및 2급: 30일

연가기간은 주당 6일 근무를 기초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근무일인 공휴일이 휴가기간 중에 있는 경우, 휴가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병가

종업원의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한 일시적 결근에 대해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3) 출산휴가

출산 유급휴가는 출산 이전 최소 70일 이상, 출산 후 56일(합병증, 쌍둥이 출산 시 70일) 동안이며, 출산 전 실제 사용한 휴가일에 관계없이 완전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상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상 부여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급여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불되나, 고용주가 국가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기부금에서 공제되는 형식으로 실제로는 모두 고용주에게 환불되는 것이다.

출산휴가 이후, 여성이 희망하는 경우 아동이 2세에 도달할 때까지 육아휴직을 제공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급여를 받는다. 여성이 희망하는 경우, 아이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아이의 부, 조부 또는 아이를 돌보는 다른 친척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여성의 종전 업무(직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업무경력 및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체협약 또는 다른 기업규정, 고용계약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의 차기 연도에 유급 연가를 산정하는 근무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해고

#### 1) 고용계약의 종료 사유 및 예외(노동법 제97조)

-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에서도 사업주와 직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고용계약 종료를 수시로 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① 사업주 또는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계약기간 만료, ③ 계약상 규정된 종료근거의 발생, ④ 양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의 발생 등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직원과의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임신 또는 3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질병재해로 임시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자(Temporarily Disable) 등은 기업 청산시를 제외하고 해고할 수 없다.

#### 2) 사업주 필요에 의한 고용종료(노동법 100조, 통상적으로 “해고” 개념에 해당)

-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원을 임의로 고용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명시하여 열거하고 있다.
  - ① 기술변화, 업무량 감소로 인한 직원 감소, 생산방식 변화, 기업청산(2개월 전 예고), ② 직원의 자격(능력)부족 또는 건강상태로 인하여 업무수행 부적합(2주 전 예고), ③ 근무규칙 또는 의무의 반복위반(1년 2회 이상의 징계, 3일 전 예고), ④ 중대한 근무규칙 위반(1회 위반시 3일 전 예고), ⑤ 파트타임 직원을 대체하여 상시 근무 직원을 채용, ⑥ 기업 소유주 변경(2개월 전 예고)
  - \* 직원이 사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2주 전(비근무일 포함)에 고용계약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2주일 경과 후 업무를 종료할 수 있음. 건강상 이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주일의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 해고수당(Severance Pay)

- 사업주 필요에 의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직원의 의무위반은 제외)는 월 평균임금 이상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한국에서와 같은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 최소연가(15일)를 초과하는 연가 중 전년도 미사용한 연가 등은 고용계약 종료시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 기본연가(15일)와 사회적 휴가(예: 출산휴가)는 반드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 퇴직금

우즈베키스탄은 퇴직금 제도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고용주가 해고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 외국인 근로자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이 노동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위 노동허가서에 기해 노동활동 권리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위 노동허가서와 노동활동권리확인서는 우즈베키스탄 주민노동 및 사회보호부 산하의 대외노동이민국(이하 이민국)에서 발급한다. 노동허가서 및 노동활동권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이민국에서 정하고, 이민국은 서류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노동허가서 및 노동활동권리확인서 발급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개인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절차는 외국인 근로 면허 발급 절차와 유사하다. 외국인 근로 면허 및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 모두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다. 외국인 근로 면허 발급 수수료는 월 최저 임금의 10배이며,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는 무료로 발급된다. 외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내 대표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 면허 및 외국인 노동 허가 모두 필요치 않으나, 대외경제 관계 부에서 별도의 개인별 인증 카드(accreditation card)를 발급받아야 한다. 노동 허가 취득을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서 2분, 근로자의 신상 설명서 2분, 고용 계약(안), 사진(2매)이 부착된 고용주의 각서, 근로자 여권 사본, 근로자의 교육 및 자격 증명서, 해당 업무 관련 외국인력 필요를 증명하는 지방노동기관의 서한, 고용 허가서 사본, 수수료 납부 은행 영수증 등이다.

## 다. 사회보장제

### 건강보험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 고용보험

고용주의 경우 현행 납부 단일사회세에서 국가고용촉진펀드 0.1% 적립 외에는 별도 고용보험 부담금이 없으며 피고용인의 경우도 고용보험 부담이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용인 실업 방지 지원, 실업인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 산재보험

2009년 서명된 고용주의 민사 책임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의 노동 부상, 직업병 또는 기타 노동 수행과 관련된 건강상 손해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민사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체결되며 보험가액은 고용주의 영업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고용주의 영업 기간에 따른 보험가액
  - 1년 이상 : 전 직원의 보험 계약 월 직전 12개월 급여 총합
  - 1년 미만 : 해당 기간 동안 전 직원의 급여 총합
  - 영업 재시작 : 전 직원의 보험계약 후 첫 급여에 12를 곱한 금액의 총합

보험료는 기업의 종사 분야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료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보험료 계산식 : 총 보험가액 x 0.1% x 계수(최소 0.534~ 최대 6)
  - 지사의 경우 계수 3.4 적용

### 국민연금

우즈베크 내에서 활동하는 지사나 영구사업장(PE), 법인은 고용직원에게 대하여 단일사회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중 대부분이 연금기금으로 적립된다. 단일사회세 세율은 기업규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2018년 기준 현행

- 소기업, 마이크로기업, 농장 : 15%
  - 이 중 연금 기금에 14.8%, 국가고용촉진펀드과 우즈베키스탄 노동조합 총연맹에 각 0.1%씩 적립
- 기타 기업 : 25%
  - 이 중 연금 기금에 24.8%, 국가고용촉진펀드과 우즈베키스탄 노동조합 총연맹에 각 0.1%씩 적립

○ 2019년 계획(잠정)

- 예산 조직 및 국영 기업,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국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 25%
  - 납부세액 전체를 연금기금으로 적립
- 기타 기업 : 12%
  - 납부세액 전체를 연금기금으로 적립

피고용인의 경우 현행 급여의 8%를 연금으로 저축하여야 하나 2019년 개정 세법 컨셉안에 따르면 피고용인의 연금 저축 의무 폐지가 예상된다.

은퇴연령은 성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충분한 근속연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 7년 이상의 근속연수를 보유할 경우 연금 수령액 조정 등을 거쳐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 은퇴연령

- 남성 : 근속연수 25년 이상의 60세 근로자
- 여성 : 근속연수 20년 이상의 55세 근로자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7. 세금

### 가. 조세제도

#### 법인세

법인세는 분기 첫 달 25일까지 전 분기에 대하여 납부한다. 연간 매출액 10억 슝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2018년 현행 기본 법인세율은 14%이며 2019년부터는 12%로 인하가 잠정 계획되어 있다. 분야별 법인세율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다.

- 2018년 현행 법인세율
  - 일반 : 14%
  - 상업은행 : 22%
  - 모바일통신사업자 : 수익률이 20% 미만일 경우 14%, 20% 이상일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14%,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
- 2019년 법인세율(잠정)
  - 일반 : 12%
  - 상업은행 : 20%
  - 모바일통신사업자 : 20%

연간 매출액이 10억 슝 미만 기업의 경우 현행 5% 통합세만 부과되며 2019년부터는 4%로 인하를 계획 중에 있다.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매월 25일까지 전월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며 2018년 현행 세율은 소득 구간별 아래와 같이 부과되고 있으나 우즈벡 정부는 2019년 세제 개편에 따라 새해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2% 단일세율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 2018년 현행 개인 소득세율
  - 월 급여가 최저 임금의 1배 미만일 경우 : 0%
  - 월 급여가 최저임금의 1배 이상 5배 미만일 경우 : 7.5%
  - 월 급여가 최저임금의 5배 이상 10배 미만일 경우 : 16.5%
  - 월 급여가 최저임금의 10배 이상일 경우 : 22.5%
  - 상기 부과된 세액의 2%는 연금으로 적립
  - 소득공제 대상에 속하는 별도 대상군은 최저임금의 4배 소득공제
- 2019년 개인 소득세율(잠정)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2%
  - 상기 부과된 세액의 0.1%는 연금으로 적립
  - 소득공제 대상에 속하는 별도 대상군은 최저임금의 4배 소득공제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월 25일까지 전월에 대해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20%이다. 2018년까지는 VAT 납부대상이 통합세, 단일토지세, 고정세를 내는 기업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전년도 기준 매출액 10억 슝 이상 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10억 슝 이상 기업으로 변경 시행 준비 중이며(잠정) 구입한 고정 자산, 무형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VAT는 공제가 가능하다.

## 특별소비세

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 구분 및 적용 세율은 내각에서 결정한다.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25~60%에 달한다. 재화, 용역 서비스의 수출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재화, 용역,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 기타

기타 세금으로는 단일사회세, 재산세, 배당세 등이 있으며 세율은 아래와 같다.

- 단일사회세(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부과)
  - 2018년 현행
    - 소기업, 마이크로기업, 농장 : 15%
    - 기타 기업 : 25%
  - 2019년 계획(잠정)
    - 예산 조직 및 국영 기업,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국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 25%
    - 기타 기업 : 12%
- 재산세
  - 2018년 현행 : 5%
  - 지정 기간 내 설치되지 않은 설비나 완료되지 않은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2배로 부과
  - 2019년 계획(잠정) : 2%
  - 법인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시설에 대해서는 2배로 부과
- 배당세
  - 2018년 현행 : 10%
  - 2019년 계획(잠정) : 5%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8. 외환

### 가. 외환제도

#### 외환 제도 개요

2017년 9월 2일 외환자유화 정책 단행으로 외환 관리 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환율 결정 방식

- 시장변동환율제
  - 외화 수급에 의하여 환율 결정
  - 당분간 중앙은행(RCE, 외환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결정
  - \* 당분간 현재의 메카니즘(RCE)을 최대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자유화 예상
  - 시장 참여자: 중앙은행, 일반은행(매입/매도 양방향 거래 가능)
  - \* 개장: 11:00~13:00(연장 가능)
  - 각자 매입/매도하고자 하는 금액을 RCE에 제시
  - RCE는 최종 체결가(증가)를 당일(당일 13:00이후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의 시장환율 즉 기준환율로 고시
  - \* 2017년 9월 5일, 중앙은행은 외환자유화 정책 시행 후 최초환율로 8,100숨을 고시, 일반은행은 이 기준으로 매매 실행
  - \* 은행은 RCE를 통하지 않고 직접 타 은행과 거래도 가능(Interbank 거래, 당시 RCE 고시환율 기준)
  - 이후 매일 수급에 따라 환율변동

##### 2) 기업 환전(Conversion)

- (원칙) 법인은 은행으로부터 소요 외환을 제한 없이 매입 가능
  -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수입, 과실 송금, 대출 상환, 해외 출장 등 용도
- 당분간 기존 환전제도 유지(은행의 중개기능, 실수요 확인 등)
  - 은행앞 환전수요 금액 및 원하는 매입 환율을 제시
  - \* 기존 작성 방식에 따라 실수요 등 명시하여 제출
  - 은행은 RCE에 전달하고, RCE는 제시된 매입환율을 기준으로 환전 여부 결정(시장환율로 체결)

##### 3) 개인 환전

- (원칙) 거주자 개인(Individual Entrepreneurs 포함)의 환전 자유화
- 다만 약간의 규제 적용
  - 외화를 매도하고자 하는 개인은 은행의 Exchange Office를 통하여 매도 가능(9,300불 내의 경우 신원확인 불요)
  - \* E.O 영업시간 09:00~22:00
  - 수요자는 Conversion Operations 창구를 통하여 매입 가능. 단, 외환카드에 입금. 해외에서 제한없이 사용 가능
  - \* C.O 영업시간 10:00~17:00
  - \* 분기한도: 2천불에서 5천불로 상향
  - 9월 5일자 중앙은행 고시환율 8,100숨 +/- 1%내 거래(Maz 8,150, Min 8,000)
  - \* 이후 일주일 단위로 환율 고시

##### 4) 국내에서 재화, 용역, 서비스 대금 결제 관련

- 우즈벡 내 재화, 용역, 서비스, 대금결제는 우즈벡 솜으로만 가능
  - 국제관행에 따라 국제 지급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예외
  - 모든 가격과 수수료, 최저 자본금은 우즈벡 솜화로 표기
  - \* State fees, duties, other mandatory payments(consular fee 제외) 솜화 지급
  - \* 은행 Tariffs도 솜으로 표기

#### 5) 개인 사업자 관련

- 법인 설립 없이 소비재를 수입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환전 절차에 따라 외화 매입 가능
- 법인 설립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나 외화 수입이 있는 농민의 경우 은행계좌 통하여 재화 및 용역 수입 관련 외화 지급 가능

2018년 하반기 기준 외환자유화 이후 관리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을 통한 개인 및 법인의 외환매매 활성화, 블랙마켓 근절 등 정부의 환율 안정화 의지가 반영됨으로써 외화수급 관련 큰 개선이 없음에도 과거와 같은 외환 부족 압박감은 상당히 완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완전 시장변동 환율제로의 이행은 시기상조로,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 등 경제 체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외환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 외환 규제

2017년 9월 2일부로 단행된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외국환의 환전 및 대외송금 제한은 거의 사라졌다. 과실 송금의 경우도 은행에 신청 후 3일 정도 경과 후 처리가 될 정도로 편리해졌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국외에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모든 결제는 자국 통화인 솜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Non-residents)에 대한 현금 반출 관련 사항은 완화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유지했다. 따라서 비거주 외국인은 ①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 한도 내, ② 우즈벡 이외 외국으로부터 우즈벡 금융기관으로 직접 송금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외 반출 가능하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IV. 참고정보

### 1. 시장특성

####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 소비인구

우즈베키스탄 인구는 2017년 기준 3,265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총 7,100만 인구 중 약 45%를 차지하는 최다 인구 국가이며, 2004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5~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다양한 산업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등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 성장 의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약 2%씩 늘어나는 인구만큼 국민의 평균 연령이 20대라는 점, 국민들의 소득수준 또한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소비 성향

우즈베키스탄 산업 미발달로 국내 생산 소비재의 종류와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자 위주의 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2천 불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극히 민감하며 저가품 선호 경향이 뚜렷하다.

##### 한국 상품 이미지

고려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90년대 중후반 대우그룹의 대규모 현지 투자, 연 2,000명 이상의 우즈베크 근로자 한국 파견, 한국 드라마와 K-POP 인기, 정상외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독일 제품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이나 광고에 Made in Korea 또는 Technology from Korea 등이 기재돼 있으면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2. 비즈니스 에티켓

### 가. 상거래 유의사항

#### 상거래 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CIS로 독립했으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구소련 체제 당시의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사회주의 통제경제 시절의 권위주의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성향이 행정 관행과 일반인들의 의식에 아직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 상거래 시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수차례, 다원적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것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설립이나 복잡한 계약의 경우 초기부터 현지 유명 법률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든 상담내용은 기록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도록 하며, 특히 계약서 작성 시 러시아어(우즈베크어)와 영어로 2개국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중재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러시아어 원본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등이 있으므로 계약서 체결 시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나. 상담 유의사항

####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문화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문화권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만큼 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으나, 타 종교의 선교활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실제로 선교활동 적발 시 재판에 회부돼 추방 등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이자 대가족 사회로서 가족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크고 특히 아내, 여동생, 딸 등 여성 가족 일원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가족 중 여성 일원에 대한 농담이나 외모 언급 등은 삼가도록 한다.

기타 참고가 될 만한 에티켓들은 다음과 같다.

#### 1) 복장

비즈니스 시 복장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현지 기업인 또는 정부인사와의 면담 시에는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인사

우즈베크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항상 악수를 한다. 인사할 때는 오른쪽 손을 가슴에 대고 우즈베크어로 '아살로무 알라이꿈' 이라고 인사하며, 뒷사람이 오른손으로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손 악수는 서로의 정이 깊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살로무 알라이꿈' 이라는 말의 뜻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이다.

초면에는 악수만 하지만 친한 사이에는 어깨를 얼싸안고 포옹을 하기도 하며, 처음에는 왼쪽 어깨로 다음에는 오른쪽 어깨로 총 2번 포옹한다. 2번 포옹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호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감사인사를 할 때도 일반적인 인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리며 '라흐맛'이라 말한다. 남녀가 내외하는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성 간에는 악수를 하지 않고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눈인사를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문턱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면 사이가 나빠진다는 미신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 3) 선물

비즈니스 시 선물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나, 선물을 통해 비즈니스 관계를 다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물을 증정할 경우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꽃을 줄 때는 반드시 홀수로 준비한다. 장례식 등 죽은 사람에게만 짝수로 꽃을 주기 때문에 여성 등에게 짝수 꽃을 선물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 4) 명함

우즈베키스탄은 명함 문화가 확립돼 있지 않다. 구소련시대의 영향으로 정보의 비공개 원칙에 대해 아직까지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명함을 만들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 초기화 단계이다 보니 무역업체가 많지 않은 것도 명함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이유이다. 최근 다수의 기업들이 명함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명함을 만들고 있으나, 아직 명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다. 따라서 비즈니스 미팅 시 명함을 교환하지 않는다 해서 당황해하지 말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며, 상담 후 성명, 직위, 연락처 등을 수기로 적거나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 5) 약속

엄격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면담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느긋한 심성으로 일의 진척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함과 동시에 일을 재촉해 적시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 가. 성공사례

##### 1) 한국기업 사례

###### ○ 포스코대우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Daewoo Textile LLC)

(주)대우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을 포함해서도 가장 성공적인 투자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996년 페르가나 지역에 약 150만 달러를 투자해 '대우 텍스타일 컴퍼니/DTC'를 설립해 1997년 4월부터 방적 공장을 가동했으며, 1998년에는 제직 및 합사 공장설비에 대한 투자도 진행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2006년도 '갑을 페르가나'를 인수해 '대우텍스타일 페르가나/DTF'를 설립했다.

주요 생산제품은 면사 및 면직물로 2007년도부터 연간 면사 20만 톤, 면직물 1500만m를 생산했으며, 더불어 2008년 4월 추가로 4,000만 달러를 투자해 '부하라텍스타일/DTB'의 일부 공장을 인수해 방적 6만 추 생산설비를 보유하게 됐다. 2009년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DTC)과 페르가나 면방법인(DTF)을 합쳐 통합 법인을 설립했다. 성공 요인으로는 생산에서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데이터화 해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제품 생산 및 품질의 표준화를 실현한 점, 내수시장 외 인근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판로를 신규 개척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페르가나 부문 3,200명, 부하라 부문 8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본사 파견 주재원 5명 포함). 2개 공장 합해서 연 매출 1억5천만 불에 달하며, 최신 방적설비 25만추, 직기 312대를 보유하고 있다.

##### 2) 외국기업 사례

###### ○ ITOCHU Corporation

150년 전 소규모 섬유-기모노 도매상을 시작으로, ITOCHU 종합무역상사는 현재 전 세계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해외 거래 품목은 섬유제품과 금속, 미네랄, 화학제품, 임산물, 식품류, 건설재, 보험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ITOCHU 기업은 'Samarkand Automobile Factory'와 같은 많은 우즈베키스탄 업체들과 섬유산업, 전자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ITOCHU 기업은 현재 'Samarkand Automobile Factory' LLC의 주주로서 Isuzu Motors Ltd.의 조립품들을 공급해오고 있다. 공급 중인 조립품들은 'SamAuto' LLC 업체에 납품 중이며, 트럭-버스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다음은 ITOCHU를 통해 추진된 프로젝트들이다.

- Compressed Natural Gas 차량(CNG): 저렴한 가격의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친환경 차량
- 8 meter bus: 최신 디자인의 많은 탑승객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도시에 부합하는 콘셉트의 차량
- New 700P models: 새로운 종류의 차량 새시로, Isuzu Motors의 일본 엔지니어가 개발, 'SamAuto' LLC의 버스 및 트럭 제품에 사용

현재 중소형 버스를 유일하게 현지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시장 성장에 따른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사마르칸트 일지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 MAN Trucks & Bus RUS

MAN Trucks & Bus RUS는 2009년 8월 'JV MAN Auto-Uzbekistan'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며, 이와 함께 SamAvto 회사의 설비를 임대해 트럭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수개월 뒤 2012년 6월 30일 사마르칸트 지역에 새로운 생산공장 또한 가동을 시작했다. 공장의 총면적은 1만 5,000㎡에 이르며, 매년 3,000여 대의 대형트럭들을 생산하고 있다. 2번째 생산공장은 매년 8,000대까지 트럭을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타슈켄트 수도 내 쓰레기수거차량 수는(Model :MAN) 총 150대 이상에 달하며, 이 차량들은 MANCLA16 220 트럭제품의 새시(차대)를 바탕으로 생산된 차량들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폐기물 수거를 하는 Mahsustrans 등이 이들 차량의 주요 구매자들이다. 현지 수입 자동차에 대한 높은 관세에 따라 대형 트럭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투자 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의 우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4. 출입국 안내

### 가. 비자

#### 종류 및 발급절차

2018.2.10부터 우즈벡 정부는 관광목적 등을 위해 우즈벡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허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별도 우즈벡 사증 소지 없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거나 유학이나 근무를 위한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므로, 하기에 명시된 내용들을 참고해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3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숙지해야 한다.

#### 1) 사증 발급

##### ○ 제도 및 신청방법

우즈베키스탄의 비자 발급은 단순히 외국 주재 우즈베키 대사관에 신청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며, 방문 목적에 따라 반드시 우즈베키 내 현지/한국기업, 대사관, 무역관이나 여행사 대행을 통한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동 초청장을 우즈베키 외무성에 접수하면 접수 후 5일(근무일 기준) 이후에 방문자가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지역의 우즈베키 공관의 외무성에서 비자발급 허락 전문을 발송한다. 따라서 비자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어도 비자발급 희망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는 초청장 발급을 위해 [evisa.mfa.uz](http://evisa.mfa.uz)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또한, 비자신청 시 외국 주재 우즈베키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즈베키 외무성에서 대사관에 발송한 전문번호(텔레кс 번호)와 전문 발송 일자를 초청장 발급 시 확인해 비자 신청 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자 발급 시 발생하는 비용은 기간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단수 비자 \$40~160, 복수 비자 \$150~250, 통과 비자 \$40~50 정도이다. 대사관 근무시간은 월(14:00~16:00, 비자 업무), 화, 수, 목(10:00~16:00, 비자 및 기타 업무), 금(10:00~13:00, 비자 업무)이나 정해진 근무시간에도 기타 영사 업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근무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www.evisa.mfa.uz](http://www.evisa.mfa.uz)에서 비자 신청서를 작성 후 출력한 뒤 여권 사진 1부, 여권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사관 내에 기타 작성용 지나 주변에 출력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한다. 단, 비자발급을 여행사에 의뢰하는 경우 위의 금액에 여행사 대행비가 추가된다. 한편, 복수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급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 ○ 비자 발급처

-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11길 27
- 전화: (02)574-6554
- 팩스: (02)578-0576

○ 전자비자(E-VISA) 발급제도: '전자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게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비자이다. 비자신청, 수령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 - 이용 대상 및 서비스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자격 외국인 및 그 동반(F-3) 가족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 장관이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C-3-3, G-1-10)
- 2012.1.1.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 사실이 없었던 자로, 단기 상용 목적으로 국내 기업(초청자)의 초청을 받은 자(C-3-4)
- 법무부 온라인 비자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http://www.visa.go.kr))에 신청

## 2) 체류 등록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및 CIS 지역과 마찬가지로 입국 3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정해진 기한 내에 거주지 등록을 마치지 못할 경우 약 3,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거주지 등록 기한은 입국 후 3일 이내지만, 정확하게 만 72시간 보다는 도착일 포함 3일 이내를 의미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등록을 마칠 것을 추천한다.

### ○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우즈베키스탄 입국 후에는 비자에 명시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입국 전에 모든 사항을 고려해 체류 목적에 걸맞은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 ○ 외국인 등록

- 외국인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호텔과 같이 국가의 허가 하에 운영되는 숙박시설에서 체류할 경우 숙박시설에서 거주지 등록을 대행해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머물 곳을 정한 뒤 집주인과 현지 출입국관리사무소(아비르)에 가서 거주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 체류 기간 연장

- 비자에 명시돼 있는 체류 기간보다 오랜 기간 체류하게 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관광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나 병원 입원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상용 비자의 경우 2회(3개월)까지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 체류지 변경 신고

-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거주지 등록했던 것처럼 변경된 체류지와 관련된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등록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 3) 출입국 수속 및 세관 신고

출입국 수속 시에는 동일한 출입국 신고서 2장을 작성해 세관의 서명을 받은 뒤 한 장은 여행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출국 시 다른 한 장을 작성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한 장과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신고서에는 이름, 국적, 성별, 생년월일, 여권 번호, 외환보유액 등의 간단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이때 입국 시 작성했던 외환 보유금액보다 출국 시 작성하는 외환 보유금액이 더 적어야 하며, 만일 더 많은 외화를 보유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외화 반출 법에 의거해 차액을 압수당하고, 세관법 위반으로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입국 시 작성한 외환 보유금액을 실제로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나, 지나치게 많은 외환 보유금액을 신고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 나. 휴대품 통관

### 휴대품 면세

개인 소지품에 대한 검색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지나치게 많은 화물을 운송할 경우 추가적인 물품검사 및 관세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인 면세품 보유 한도는 담배 2보루(200개비), 브랜드 또는 위스키 1리터로 제한된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5. 유관기관

###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998)71 252 31 51~53
주소	7 Afrosiab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overseas.mofa.go.kr/uz-ko/index.do">http://overseas.mofa.go.kr/uz-ko/index.do</a>

#### ○ 한국교육원

전화번호	+998)71 191 81 83
주소	3 Talimarjan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s://www.tashkec.uz">https://www.tashkec.uz</a>

#### ○ KOICA

전화번호	+998)71 252 35 61
주소	32 Fidokor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www.koica.go.kr/main.html">http://www.koica.go.kr/main.html</a>

#### ○ 한국수출입은행

전화번호	+998)71 238 92 88
주소	4th floor, C Block, 107B(IBC), Amir Temur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a>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 외무부

전화번호	+998)71 233 80 98
주소	3 Amir Temur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s://www.mfa.uz">https://www.mfa.uz</a>

○ 경제부

전화번호	+998)71 232 63 20
주소	45A Islam Karimov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s://www.mineconomy.uz/en">https://www.mineconomy.uz/en</a>

○ 국가투자위원회

전화번호	+998)71 205 15 39
주소	34 Taras Shevchenko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s://www.invest.gov.uz/en">https://www.invest.gov.uz/en</a>

○ 국가민영화위원회

전화번호	+998)71 259 20 90
주소	6 Amir Temur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s://gkk.uz/en/">https://gkk.uz/en/</a>

○ 내무부

전화번호	+998)71 232 36 50
주소	1 Yu. Rajabiy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s://mvd.uz">https://mvd.uz</a>

○ 재무부

전화번호	+998)71 239 12 52
주소	29 Istiklol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s://www.mf.uz">https://www.mf.uz</a>

○ 국세청

전화번호	+998)71 202 32 82
주소	13-a Abdulla Kadiri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s://soliq.uz/uz/">https://soliq.uz/uz/</a>

○ 타슈켄트시청

전화번호	+998)71 259 22 86
주소	6 Amir Temur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s://www.tashkent.uz">https://www.tashkent.uz</a>

○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998)71 150 60 06
주소	4 Amir Temur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www.chamber.uz">http://www.chamber.uz</a>

○ 대외무역부

전화번호	+998)71 238 50 05
주소	51 Istiqlal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s://www.mft.uz/en">https://www.mft.uz/en</a>

○ 통계청

전화번호	+998)71 230 81 52
주소	63 Mustakillik Str., Tashkent
홈페이지	<a href="https://www.stat.uz/en">https://www.stat.uz/en</a>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6. 물가정보

### 가. 물가정보 표

1 USD : 8319.12승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KFC 치즈버거)	단품	1.5
2	식품	비빔밥	1인분	7.21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7.81
4	식품	신라면	1봉지	1.44
5	음료	커피(블랙베어커피-아메리카노)	1잔	1.2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12
7	음료	우유(마트)	1L	0.83
8	의료	항생제	12정	0.84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14
10	교통	지하철요금(1구간)	기본요금	0.14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72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6
13	서비스	AI 80 휘발유	1L	0.58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03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3.6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1.8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2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	24.37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	연간	26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6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7. 출장정보

### 가. 환전

#### 통화체계

##### 1) 화폐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1993년부터 자체 화폐인 슴을 발행해 운용하고 있다. 주화는 5, 10, 25, 50, 100스 단위로 운용되고 있고, 지폐는 10, 25, 50, 100, 200, 500, 1000스 등 9가지 화폐가 발행됐으나, 한편,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 5,000스 신권, 2017년 3월부터 10,000스권, 2017년 8월 22일부터 50,000스권이 발행되기 시작해 현재 12개 종류의 지폐가 있다. 그러나 거의 200, 500, 1000, 5000, 10000스권, 50000스권만 유통되고 있다.

##### 2) 환율

2018년 12월 17일 기준 미화 1달러당 슴화 환율은 (매매 기준율) 8,300스이다.

#### 환전방법

현지화(Sum) 환전은 공항, 주요 호텔, 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 신용카드 이용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용카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숙이 가능한 특급 혹은 1급 호텔에서는 비자, 아멕스, 마스터스, 은련 등 주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항공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 나. 교통

#### 교통상황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도로는 포장 상태 및 관리 면에서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다. 운전자들은 매우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으며, 횡단보도라고 할 지라도 길가에 표지판만 세워져 있거나 별도의 횡단보도 표시 선이 없는 경우가 많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반대로 보행 시에도 난폭 운전자 및 신호 위반 운전자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 버스

버스는 대부분 현대식으로 매우 청결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버스를 탈 때는 따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며, 버스 안에 버스비를 걷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으므로 그때 돈을 지불하면 된다. 요금은 1,200스이다. 한국과 같이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내부에 운행구간이 표시돼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 택시

우즈베키스탄 택시는 Taxi라는 표식판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자가용 택시와 Taxi라는 표식을 붙이고 운행하는 회사 택시가 있다.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면 쉽게 세울 수도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바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택시 앱을 이용하여 콜택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다. 앱 택시의 경우에는 운전사와 탑승 차량 정보를 알 수 있고, 요금도 미터 프로그램이 있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

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주요 택시 앱으로는 yandex taxi, my taxi 등이 있다. 호텔에 체류할 경우 프런트에 부탁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시내에서의 이동은 6,000숨 정도이며, 15~20분 소요되는 거리도 10,000숨 이내로 지불하면 충분하다.

## 지하철

지하철은 3개 노선으로 돼 있으며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승차권을 구입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1,200숨이다. 지하철 계단이나 역사 입구에 경찰들이 항상 경비를 서고 있으며, 가방 검사나 외국인들의 경우 여권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원래 지하철 내 사진촬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었지만 최근 가능해졌다.

## 마르슈루트카

마르슈루트카는 봉고차와 비슷하며 차에 탄 후 기사에게 돈을 주면 된다. 요금은 1,500~3,000숨이다. 정류장은 정해져 있으나 버스처럼 벨이 있거나 매번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릴 곳에 다다르면 기사에게 세워달라고 말해야 한다. 시내보다는 주로 도시 외곽지역과 같이 먼 곳에 갈 때 이용한다.

## 다. 통신

### 핸드폰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시절 설치된 전화선, 교환기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신 여건이 매우 낙후된 편이다. 국제통신의 경우에는 국내통신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통화 중 이유 없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 국내통신의 경우 전화선 및 교환기 노후로 인해 국제통신보다 더욱 열악한 편이다. 시내전화 요금은 분당 \$0.14로 매우 비싼 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Beeline, U-cell, Perfectum Mobile, Uzbektelecom, UMS 등 5개 회사가 무선통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Beeline, U-cell 및 UMS는 GSM 방식이며 Perfectum Mobile, Uzbektelecom는 CDMA 방식이다.

### 인터넷(와이파이)

대표적인 인터넷(와이파이) 제공업체로는 Uzbektelecom과 KT의 우즈벡 투자법인 EVO가 있다. Uzbektelecom은 최근 2018년 12월 1일, 자사의 인터넷(와이파이) 속도를 3~4배 증가시켜 최대 40Mbps까지 사용 가능하다. TEZNET 요금제가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 라. 관광명소

### ○ 칼란 미나레트(Kalon Minaret)

도시명	부하라
주소	호자 누로보바드 거리
운영시간	오전 8:00~오후 8:00
휴무일	연중무휴

<b>명소소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칼란'이란 타직어로 '크다'라는 뜻으로, 이름에 걸맞게 높이가 46m에 이르러, 부하라의 어느 곳에서도 보이는 부하라의 상징</li> <li>○ 1127년에 칼란칸 왕조 아루스 칸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부하라의 흥망을 지켜본 산증인이라 일컬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의 기반부 직경은 9m, 토대부분이 지하로 10m 들어가 있으며 탑은 위로 갈수록 좁아드는 원통형으로 탑의 벽면은 14층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벽돌을 다르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장식. 벽돌들은 햇빛에 구운 갈색 벽돌이며, 달걀의 흰자와 낙타 젖으로 반죽하여 쌓았다고 함.</li> <li>- 미나레트는 모스크의 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며 다리로 이어져 있고 내부에는 105개의 나선계단이 있으며, 관리인과 잘 협상만 하면 올라갈 수도 있음(현재, 공식적으로는 금지)</li> </ul> </li> <li>○ 미나레트는 사막의 등대로서 사막 여행객에게 있어 중요한 길잡이였고, 또한 18세기경에는 '공개 처형장'으로 꼭대기에서 자루에 넣어진 사형수를 던졌기 때문에 '사(死)의 탑'으로 불리기도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후의 사형은 1884년</li> </ul> </li> <li>○ 미나레트는 마을 전체가 붕괴된 대지진에도 흔들림이 없었고 파멸을 몰고 다니는 징기스칸에게도 파괴되지 않았던 것으로 많은 전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기스칸이 와서 이 탑을 올려다보다 그만 모자를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생각 없이 허리를 숙여 모자를 주우려 하던 징기스칸은 "이 탑은 나의 머리를 숙이게 한 멋진 탑이다. 그대로 두어라"라고 말했다고 함.</li> </ul> </li> </ul>
-------------	---

○ 레기스탄 광장(Registon Square)

<b>도시명</b>	사마르칸트
<b>주소</b>	레기스톤 거리
<b>운영시간</b>	24시간
<b>휴무일</b>	연중무휴
<b>명소소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마르칸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 레기스탄은 '모래땅'이란 뜻으로 옛날에 모래로 뒤덮인 사막이었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광장으로 왕의 알현실, 공공집회, 죄인의 처형 등이 행해짐.</li> <li>- 티무르 시대에는 대규모 노천시장이 있었으며, 그의 후손인 울루그벡 시대에 처음으로 메드레세가 세워졌으며 메드레세의 맞은편에 하나카를 세움.</li> </ul> </li> <li>○ 광장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은 그 후 샤이바니 왕조의 야한그도슈 바하도르에 의해 다른 2개의 메드레세가 건립된 이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의 메드레세가 건립된 이후 레기스탄 광장은 이슬람 교육의 중심지로서 명성이 자자하였으며, 그 후 구소련 시절에는 이슬람 종교의 탄압으로 다시 거대한 노천시장으로 탈바꿈함.</li> <li>- 지금은 이슬람 교육의 장소도 아니고, 노천시장도 아닌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li> </ul> </li> <li>○ 광장의 왼쪽에 위치한 건물이 울루그벡 메드레세, 중간이 킬라카리 메드레세, 오른쪽이 쉬르도르 메드레세</li> <li>○ 현재 광장은 명절이나 기념일 때 대규모의 콘서트나 행사가 열리기도 해서 무대와 좌석들이 설치되어 있고 우즈벡의 50숨짜리 지폐를 보면 레기스탄 광장이 나옴.</li> </ul>

○ 우즈베키스탄 국립 역사박물관(State Museum of History of Uzbekistan)

<b>도시명</b>	타슈켄트
<b>주소</b>	부유크 투론 거리 3번지
<b>운영시간</b>	오전 10:00~오후 5:00
<b>휴무일</b>	매주 월요일

<b>명소소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76년 투르키스탄 공공박물관으로 문을 연 이래 사마르칸트, 페르가나 박물관 개장에 도움을 준 뒤 현재는 타슈켄트 중심가에 박물관 위치함.</li> <li>○ 고고학적, 고전학적, 인류학적, 민족적으로 중요한 25만 점이 넘는 세계적인 수집품들을 탁 트인 전시공간에서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박물관 중 최대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기시대부터 시작된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중앙아시아 문명 발달에 대한 사료가 풍부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li> </ul> </li> </ul>
-------------	---

○ **아미르 티무르 박물관(Amir Temur Museum)**

<b>도시명</b>	타슈켄트
<b>주소</b>	아미르 티무르 거리 13번지
<b>운영시간</b>	오전 9:00~오후 5:00
<b>휴무일</b>	매주 월요일
<b>명소소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 아미르 티무르 탄생 600주년을 기념하여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국립 박물관</li> <li>○ 14-15세기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영웅인 아미르 티무르 관련 각종 사료들과 그 당시 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보관되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li> </ul>

○ **칼타 미노르 미나레트(Kalta Minor Minaret)**

<b>도시명</b>	히바
<b>주소</b>	이찬칼라 내부
<b>운영시간</b>	24시간
<b>휴무일</b>	연중무휴
<b>명소소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타 다르바자(서문)를 들어서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에메랄드빛 푸른 타일로 덮힌 아름다운 미완성의 미나레트로 1852년에 착공되어 3년 후인 1855년에 미완성된 상태로 중단</li> <li>○ 미완성이어서 그런지 더욱 더 독특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며,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 히바 지역을 지배했던 무함마드 아민 칸은 당대 최고의 기술자를 동원하여, 108m의 높고 멋진 미나레트를 지어 약 400km 떨어진 부하라를 감시하려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부하라의 에미르 칸이 미나레트의 기술자를 매수해 공사를 중단시키고, 부하라에 보다 높은 미나레트를 건설하려고 함. 부하라로 몰래 도망을 가려던 기술자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아민칸에 의해 사막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현재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다고 하지만 역사가들은 아민 칸이 1855년에 이란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고도 말함.</li> </ul> </li> <li>○ 기단부의 직경은 14.2 m이기 때문에 만약 완성되었으면 70~80m의 높이가 되었겠지만, 지금은 26m에서 중단된 채 있으며 칼타는 '짧다'라는 뜻</li> </ul>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마. 식당**

- 현지식당

○ 아프소나(Afsona)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 252 56 82
주소	T. Shevchenko St.,30, Tashkent, Uzbekistan
가격	메인요리 약 20,000~70,000숨
영업시간	오전 11:00~오후 11: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ABNMB그룹이 운영하는 고급스러운 우즈베크 전통 식당

○ 에이프릴(April)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90 912 53 33
주소	Zakirova St. 63, Tashkent 100202, Uzbekistan
가격	메인요리 약 45,000~100,000숨
영업시간	오전 11:00~오후 11: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춘 우즈베크, 유럽, 일본 요리 패밀리 식당

○ 카라반(Caravan)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 150 66 06
주소	63 Chinobod street (Chinabad sanatorium), Tashkent
가격	메인요리 약 20,000~60,000숨
영업시간	오전 11:00~오후 11:3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카라반 그룹이 운영하는 고급 우즈베크 정통 패밀리 레스토랑

○ 아프레스코(Affresco)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 129 90 90
주소	Bobur str., Tashkent

가격	메인요리 약 40,000~100,000숨
영업시간	오후 12:00~오전 12: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카라반 그룹의 시칠리아식 레스토랑으로 타슈켄트에서 가장 로맨틱한 레스토랑

○ 아이리쉬펍(The Irish Pub & Restaurant)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 252 78 42
주소	30 Tara Shevchenko str., Tashkent
가격	메인요리 약 40,000~100,000숨
영업시간	오전 11:00~오후 11: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ABNMB 그룹이 운영하는 아일랜드식 펍 및 레스토랑으로 1층은 펍, 2층은 레스토랑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한국식당

○ 가마솥(Gamasot)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 128 80 08
주소	그랜드미르 호텔 옆
가격	메인요리 약 50,000~100,000숨
영업시간	오전 7:00~오전 12: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한국처럼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한강(Han Gang)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 300 08 53
주소	마가진 챔축 뒤편
가격	메인요리 약 50,000~100,000숨
영업시간	오전 11:00~오후 11: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매일 바뀌는 특선메뉴가 있으며, 한국과 비슷한 가격수준이다.
----	-----------------------------------

○ 김씨네(Kimsine)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 365 23 40
주소	바부르 공원 근처
가격	메인요리 약 50,000~100,000숨
영업시간	오전 10:00~오후 10:3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오후 4:30부터 영업 시작
소개	삼겹살, 보쌈 등 다양한 메뉴로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 만나(Manna)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 254 17 96
주소	타슈켄트 북역 근처
가격	메인요리 약 50,000~100,000숨
영업시간	오전 10:30~오후 9:3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소개	김치찌개, 설렁탕, 수육 등 다양한 메뉴가 있으며, 현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다.

○ 해들이(Haedri)

도시명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 310 37 75
주소	페르가나 거리 15번지
가격	메인요리 약 50,000~100,000숨
영업시간	오전 9:30~오후 10: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소개	삼겹살, 전골, 불고기, 해산물 등 메뉴가 다양하며 맛이 좋은 편이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윈덤호텔(구 데데만 호텔)(Wyndham Hotel(구 Dedeman Hotel))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아미르티무르 거리 7/8번지,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0 120 37 00
홈페이지	<a href="http://www.wyndhamtashkent.com/en.html">http://www.wyndhamtashkent.com/en.html</a>
숙박료	싱글 \$155, 트윈 \$185
소개	호텔 체인 윈덤 그룹이 운영하는 4성급 호텔로 알라이스키 시장과 압둘라 코디르 역 주변에 위치하며 주요 관광지와의 근접해 있다.

○ 롯데 시티 로텔 타슈켄트 팰리스(Lotte City Hotel Tashkent Palace)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부육투론 거리 56번지,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 120 58 00
홈페이지	<a href="https://www.lottehotel.com/tashkentpalace-city/ko.html">https://www.lottehotel.com/tashkentpalace-city/ko.html</a>
숙박료	싱글 \$180, 트윈 \$20
소개	4성급의 롯데 그룹 직영 호텔로 건물자체가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지정 건물이며 독립광장 및 주요 관광지들과 가까이 위치해있다.

○ 그랜드 미르 호텔(Grand Mir Hotel)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미라바트 거리 2번지, 타슈켄트
전화번호	+998)71 140 20 02
홈페이지	<a href="http://grandmirhotel.com/">http://grandmirhotel.com/</a>
숙박료	싱글 \$190, 트윈 \$220
소개	5성급 호텔로 청결하고 시설도 양호하며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서 주변에 한국 식당이나 가게가 많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호텔 중 하나이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 선라이즈 카라반 스테이 호스텔(Sunrise Caravan Stay Hostel)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미라바트 드라이브 2 45번지

전화번호	+998)71 281 41 51
홈페이지	http://sunrisecaravanstay.uz/
숙박료	도미토리 \$9, 개인실 19\$
소개	2015년 7월에 오픈한 부티크 게스트 하우스로 3~4성급 호텔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한국 식당이나 가게가 많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사. 치안

### 치안상황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매우 좋은 편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 외교 통상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과 접경지역인 남부 테르미즈 및 인접국 접경지역이 여행 유의지역으로 설정돼 있으므로 해당 지역 방문 시 치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경찰국가라고 할 만큼 경찰이 많고 국민성 또한 전반적으로 온순한 편이지만, 외국인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적이 드문 밤길을 피하며 되도록 단체로 이동하는 등 항상 신변보호 및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별 정보 및 대한민국 영사서비스는 외교통상부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 외교통상부 사이트: <http://www.0404.go.kr/>

### 응급상황 대처요령

#### 1) 교통사고

○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 문제도 있고, 우즈벡 운행 차량 상당수가 무보험 차량이어서 사고 시 배상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 유의하는 것이 필요

○ 사고현장에서 차량을 움직이지 말고, 경찰서(국번 없이 102번)에 신고 또는 근처에 경찰이 있는 경우 경찰을 입회시켜 서류 작성하는 좋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현장 사진, 가해 운전자의 운전면허/신분증, 차량등록증 등 기록보존을 위한 상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2) 여권/지갑 분실

○ 경찰(국번 없이 102번) 및 주우즈벡 한국대사관에 신고하여 필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음.

- 주우즈벡 한국대사관 연락처 : (대표전화)+998-71-252-3151~3, (당직 전화)+998-91-192-1595

#### 3) 응급전화(24시간 응급실): 국번 없이 103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8. 생활정보

### 가. 주택

####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 대부분의 주택시설은 구소련시절(타슈켄트 시내의 경우 1966년 대지진 후 신속한 건설 주택 다수) 지어진 것으로, 겉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낙후하나 내부는 비교적 깔끔한 편이다. 최근 들어 고급 주택이나 현대식 고층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외에도 주거 지역에 따라 빈민촌을 연상케 하는 낙후된 주택에서부터 수영장이 딸린 고급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집을 구할 때는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는 집세 외에도 중개료를 줘야 하는데, 중개료는 중개인마다 다르며 주택 매매의 경우 주택 가격의 3%, 임차의 경우 1개월 월세의 50%가 일반적 수준이다. olx.uz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집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개인이 본인의 집을 업로드하기 보다는 부동산 업자가 글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들은 보통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집을 임대해서 거주하며, 임대의 경우 한국과 같이 대부분 별도의 보증금이 없으며 매달 월세만 지불하면 된다. 외국인도 일정 조건하에서 집을 살 수 있다.

#### 전화

집을 임대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유선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역마다 위치해 있는 전화국(ATC)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무선전화의 경우 거주지 등록을 마친 뒤 관련 서류(레지스트라찌야)를 들고 가까운 통신사에서 SIM 카드를 구입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한국과 같은 후불방식이 아니라 먼저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 방식이며, 통신사나 도심 곳곳에 세워져 있는 충전소(paynet)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다.

#### 전압/플러그

공업용으로는 삼상 380V가 공급되고 있고 일반용으로는 220V가 공급되고 있다. 주파수는 50Hz로서 한국과 달라 모터가 달린 전자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송전시설의 낙후로 전압이 일정치 않아 일정한 전압이 요구되는 전자제품 등은 안정기를 부착하고 사용해야 한다.

#### 식수

수돗물은 현지인들은 정수하지 않고 마시고 있으나,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고 석회분이 많아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게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고급식당들은 정수기로 처리한 식수를 제공하므로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지만, 현지 식당 등에서는 반드시 미네랄워터(Bottled Water)를 주문해야 한다. 미네랄워터는 대형, 미니 슈퍼에서 구입 가능하다.

###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 구매방법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회사 Uz Auto가 있어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현지에서 수입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130% 이상의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구입 후에는 경찰서(가이) 교통과에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1주일 정도의 등록 기간이 소요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최근 몇몇 보험사가 생겼으나 보험료가 비싼 편이며, 현지인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소액의 대물, 대인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차량가격

### ○ 쉐보레(GM) 기준

- 스파크(SPARK)(에어컨 장착 기본옵션) - 64,662,622 슴
- 라세티(Lacetti)(에어컨 장착 기본옵션) - 124,819,479 슴
- 말리부-2(Malibu-2)(에어컨 장착 기본옵션) - 267,508,298 슴

\* 총 가격 = 차량 가격 + 세금 5% + 자동차 등록비(1,500cc 신차기준) 약 4,143,736 슴 +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 운전경력 10년, 대인/대물 커버, 1년) 170,000스

## 운전면허 취득

### 1) 운전면허 보증서 발급(단기간 운전 시)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 한국인은 운전면허증(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러시아어 번역인증과 운전면허 사실 확인을 대사관에서 받고 외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신체 검사서를 받은 후, 외무부 외교서비스센터에 여권사본, 비자사본, 거주등록 사본과 함께 기관 또는 회사 명의로 '운전면허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동 외교서비스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다음 날 운전면허 보증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경우, 신체검사만 받으면 되고 별도로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으나, 보증서 유효기간은 비자 기간 내에서 최장 1년이므로, 기간 만료 시 동일 절차에 따라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개인은 할 수 없고 소속기관 또는 회사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동 보증서와 한국 운전면허증(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하면 주재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 ○ 구체적인 신청 절차

- ① 한국운전면허증(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번역하고, 여권과 그 사본 각 1부를 지참해 대사관 영사과에 운전면허 번역인증과 운전면허 사실 확인 신청(2~3일 소요)
- ② 외무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발급
- ③ 기관 또는 회사명의로 운전면허증 보증서 신청서(첨부 자료 참조)를 작성하고, 위 1, 2단계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여권사본, 비자사본, 거주등록사본을 첨부해, 외무부 산하 외교서비스센터에 제출
- ④ 외교서비스센터에서는 동 서류를 검토하고, 그 다음 날 운전면허 보증서를 발급
- ⑤ 한국 운전면허증과 위 보증서를 항상 소지하면 주재국에서 운전 가능

### 2)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 발급(장기간 운전 시)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학원 수강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으면 별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운전학원을 3~6개월간 수강해야 한다(수강비용 약 15만 원). 대사관에서 운전면허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가지고 외무부에서 재차 운전면허 사실 확인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여권사본과 함께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한 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거쳐 합격할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시험 없이 바로 주재국 운전면허로 바꿀 수는 없으며, 반드시 우즈베키스탄의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 구체적인 신청 절차

- ①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과 그 사본 각 1부를 지참하고, 대사관에 운전면허 사실 확인 신청(2~3일 소요)
- ② 위 1단계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여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외무부에 가서 운전면허 사실 확인을 재차 발급받음.
- ③ 운전면허시험장(파이자밧)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음.
- ④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 사실확인서와 신체검사서를 첨부한 운전면허 응시 원서 제출
- 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우리나라 면허증을 피자밧에 맡기고 주재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아 운전 가능

### 3) 한국 운전면허로 별도 시험 없이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장기간 운전 시)

2015년 5월 28일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시, 한-우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서명돼 동년 12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우즈베키스탄 내 거주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한국 운전면허증 앞뒤면 사본에 대한 공증 및 대한민국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아포스티유 인증서와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공증 사무소에서 우즈베키어로 공증을 받을 경우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 다. 은행 계좌 개설

### 주요은행

우즈베키스탄에는 28개의 은행(2018년 7월 기준)이 영업 중이다. 한국계 은행으로는 구 대우은행의 지분을 인수해 진출한 KDB Bank Uzbekistan이 있으며 국영은행들을 제외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상업은행에서는 총자산 면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 계좌 개설방법

외국인도 은행에 여권을 가지고 가면 별도의 제약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계좌 개설 시 최초 입금액은 본인이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휴대 외환 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외 계좌에서 출금한 외환만큼만 가능하다. 즉, 본인 명의로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지 않은 금액은 입금할 수 없다. 외환계좌의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계좌 이용료가 별도 부과된다. 외국인의 외환계좌 개설과 외환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관련 외국환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우므로 은행을 방문,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의 산업은행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KDB Uz로 진출해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다른 은행(시티은행, 외환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한국 산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현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몇몇 호텔에 ATM기가 있으나 ATM기 내에 외화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돈을 인출할 때는 통장과 여권을 가지고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다만, 수수료가 비싼 편으로 한 번 출금할 경우 한화로 약 5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있다.

## 라. 교육

### - 주요 국제학교

#### ◦ TIS(Tashkent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타슈켄트
커리큘럼	미국식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으며, 초등과정에서 고등과정(1~12학년)까지 있다.
학비	입학금 3,000USD, 1년 과정 약 21,000USD(6학년 기준)
홈페이지	<a href="http://www.tashschool.org/">http://www.tashschool.org/</a>
비고	학생 구성은 한국학생이 약 30%로 가장 많으며 미국, 러시아, 터키 등 다양한 외교기관, 외국계 투자기업 관계자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

○ British School

도시명	타슈켄트
커리큘럼	영국식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으며, 고등과정이 없기 때문에(9학년까지 존재) 대부분의 주재원 자녀들이 TIS를 다니고 있다.
학비	발전기금 3,500USD, 1년 과정 약 10,530USD(6학년 기준)
홈페이지	<a href="http://britishschool.uz">http://britishschool.uz</a>
비고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Upper Campus와 취학 전,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Lower Campus로 구분.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현지학교

○ 00번 쉬꼴라

도시명	타슈켄트
커리큘럼	우즈베키스탄에는 초, 중, 고등교육과정을 나누지 않고 '쉬꼴라'에서 11년간 교육과정을 받는다. 쉬꼴라에서는 러시아어 또는 우즈베크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차츰 우즈베크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늘어 나는 추세이다.
학비	등록금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의 경우 소액의 지원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입학전 물품으로 기부를 하기도 한다(쉬꼴라 교장과 입학전 협의 요망).
홈페이지	<a href="https://www.uzedu.uz">https://www.uzedu.uz</a>
비고	쉬꼴라는 따로 이름이 없고 번호로 구분된다(예: 1번 쉬꼴라, 49번 쉬꼴라).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마. 병원

○ 타슈켄트국제병원(UN병원)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타슈켄트, 사라쿨 38번지
전화번호	(+998-90) 327-3378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 국립 제2병원 한의진료센터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아카DEM 고라독 ATC(아떼에스) 맞은편
전화번호	(+998 71) 262-5758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부인과 전문의
------	----------------

○ 중앙응급의료과학센터 (구 16병원)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타슈켄트, 프라하드스카야 2번지
전화번호	(+998 71) 150-4600
진료과목	외과, 신경외과
비고	응급치료만 가능하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쫘’ 마가진(타슈켄트 중앙백화점)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나보이 극장 옆
비고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쫘’이라는 말은 러시아어로 중앙 백화점을 의미하는 머리글자 모음이다. 구소련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적한 소규모 백화점 정도로 볼 수 있다. 가격대가 높은 편으로 현지인들은 주로 이곳을 이용하지 않는다.

○ 넥스트몰(NEXT MALL)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바부르 공원 근처
홈페이지	<a href="http://nextmall.uz/">http://nextmall.uz/</a>
비고	깔끔하고 세련된 현대식 소형 종합 쇼핑몰이다. 1층에는 슈퍼와 각종 잡화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2층, 3층은 주로 의류가 판매되고 있다. 3층에는 작은 영화관도 겸비돼 있고, 4층은 패스트푸드 코너와 오락실이 있다.

○ 사마르칸드 다르바자(SAMARQAND DARVOZA)

도시명	타슈켄트
주소	철수시장 근처
홈페이지	<a href="https://sdmall.uz/">https://sdmall.uz/</a>

<b>비고</b>	현재 타슈켄트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합 쇼핑몰로, 고급 인테리어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마켓이 있으며 2층, 3층에는 고급 브랜드 의류와 잡화 등이 있으며, 4층에는 영화관과 어린이 놀이방, 오락실이 있고 5층은 패스트 푸드코너와 각종 음식점이 있다. 주말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복잡하기도 하다.
-----------	--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식품점**

○ **까르진카 슈퍼마켓(Korzinka Supermarket)**

<b>도시명</b>	타슈켄트
<b>주소</b>	한국관 뒤, 쭌마가진 근처, 알라이스키 바자르 근처 등
<b>취급 식료품</b>	일반 식료품
<b>비고</b>	타슈켄트 여러 지역에 오픈한 대형 슈퍼마켓으로 식료품, 잡화 등 거의 모든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 **아르두스(Ardus Supermarket)**

<b>도시명</b>	타슈켄트
<b>주소</b>	브로드웨이 내, 알라이스키 바자르 앞
<b>취급 식료품</b>	일반 식료품
<b>비고</b>	우즈베크와 독일 합작회사로 다양한 식료품과 시계, 옷, 생필품 등을 구비하고 있다.

○ **마크로(Makro Supermarket)**

<b>도시명</b>	타슈켄트
<b>주소</b>	그랜드미르 호텔 옆, 러시아 대사관 옆 등
<b>취급 식료품</b>	일반 식료품
<b>비고</b>	타슈켄트 여러 지역에 오픈한 대형 슈퍼마켓으로 식료품, 잡화 등 거의 모든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타슈켄트 레이크사이드 CC**

<b>도시명</b>	타슈켄트
<b>주소</b>	타슈켄트 시내에서 차로 20분
<b>소개</b>	중앙아시아에 유일한 골프장으로 국제 규격을 충족하며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수영장, 드라이빙 레인지, 리조트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 **국립예술극장(나보이 극장)**

<b>도시명</b>	타슈켄트
------------	------

주소	브로드웨이 옆
홈페이지	http://gabt.uz/en/
소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한 국립예술극장은 그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도 매우 아름답다. 타슈켄트에 66년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폐허가 됐을 때도 건재했다고 해 우즈베크인들의 자랑이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공연을 비롯해 지젤, 호두까기인형, 라트라비아타 등의 유명 발레나 오페라도 관람할 수 있다. 유명한 공연의 경우 예약을 하지 않으면 티켓을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2019-01-01	
여성의 날	2019-03-08	
나부르즈	2019-03-21	
추모일	2019-05-09	
라마단하이트	2019-06-05	라마단(금식기간)이 끝나는 날
쿠르반 하이트	2019-08-12	라마단(금식기간)이 끝나고 70일째 날
독립기념일	2019-09-01	
스승의 날	2019-10-01	
제헌절	2019-12-08	

<자료원 :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9. KOTRA 무역관 안내

### 타슈켄트 무역관

####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4th floor, 107B(IBC), Amir Temur str., Tashkent 100084, Uzbekistan
  - 인터내셔널 호텔, NBU(National Bank of Uzbekistan) 본사 옆에 위치한 IBC(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4층에 위치
  - 타슈켄트 지하철 Yunosabod라인 Bodomzor역 하차 도보 1분
- 연락처
  - 전화번호: +998-71-140-0215~16
  - 팩스: +998-71-140-0217
  - e-mail: kotratashkent@kotra.or.kr

#### 공항-무역관 이동

택시비가 비싸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택시는 초행길의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지만,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20~25분 정도 걸리기에 택시비로 15,000~20,000숨(약 2달러)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택시기사에게 International 호텔(구 Intercontinental 호텔)로 가달라고 하면 된다. 그 외 지하철 공항역은 없으며 버스는 67번 버스가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오지만 추천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